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및
피부관리와 피부유형의 관계성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신 미 희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 도 연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및
피부관리와 피부유형의 관계성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Cleansing Produ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kin Care and Skin Type

2017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에스테틱전공

신 미 희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 도 연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및
피부관리와 피부유형의 관계성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Cleansing Produ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kin Care and Skin Typ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뷰 티 에 스 테 틱 전 공

신 미 희

신미희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및 피부관리와 피부유형의 관계성 연구

한 성 대 학 교 예 술 대 학 원
뷰 티 예 술 학 과
뷰 티 에 스 테 틱 전 공
신 미 회

세안은 피부관리의 기초가 되며 효과성을 좌우하는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이므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피부관리를 계획하여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징제품을 선택해 올바른 세안방법으로 정확히 관리 되어야 한다.

처음으로 외기에 노출되는 피부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피부에 남게 된다면 모든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각종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고, 민감성피부 및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 깨끗한 세안으로 피부청결과 함께 피부의 생리적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녁세안은 하루 동안 피부에 쌓인 피지와 땀 등의 노폐물과 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메이크업 잔여물, 목은 각질 등을 클렌징제품을 이용해 꼼꼼하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렌징의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지 않는 세안제의 선택과 잘못된 세안 방법으로 각종 피부트러블과 노

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렌징제품의 사용실태 및 피부관리와 피부유형의 상호 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징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올바른 관리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클렌징제품 사용과 관련된 올바른 미용지식을 알려 피부 건강관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와 2차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화장을 시작하는 10대부터, 기초화장품에서 색조 메이크업까지 다양한 화장품들을 사용하는 60대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폭넓게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면접법과 설문지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간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답변 29부를 제외한 521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55명(29.8%), 여자는 366명(70.2%)으로 여자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30~39세가 153명(29.44%)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73명(31.1%)과 대학교 졸업 158명(30.3%)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종사자가 121명(23.2%) 결혼여부는 미혼이 299명(57.4%)으로 많았고, 월수입은 300만원이상, 128명(24.6%) 월 용돈은 20만원이상이 264명(50.7%)로 나타났다.

둘째, 피부관리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부 당김,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세안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부 당김,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클렌징제품 평가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셋째, 클렌징제품 사용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클렌징제품 평가, 이중세안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피부상태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이중세안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피부 당김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일반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세안방법, 이중세안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넷째, 피부 유형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세안방법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일반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피부당김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피부유형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피부 당김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이중세안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클렌징제품 평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피부상태 등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세안전후 관리방법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일반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올바른 클렌징제품 선택과 사용방법은 피부관리나 클렌징제품 사용에 중요한 변수가 되며 클렌징제품 사용, 피부관리, 피부유형 각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클렌징제품 사용은 피부 당김이나 피부상태 등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적절한 클렌징제품 사용 및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부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클렌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건조, 세정력, 피부 부작용, 만족도 등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해 보완함으로써 차후 제품연구개발과 피부미용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객관적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피부유형, 피부관리, 클렌징, 세안방법, 이중세안, 피부 부작용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피부관리(Skin Care)	6
1) 피부관리 개요	6
2) 피부관리의 유형별 분류	10
제 2 절 피부유형(Skin Type)	21
1) 피부유형 개요	21
2) 피부유형 결정 요인	21
3) 피부유형별 특징 및 관리방법	24
제 3 절 클렌징(Cleansing)	28
1) 세안의 정의	28
2) 세안제의 종류	29
3) 클렌징의 목적 및 필요성	32
4) 클렌징의 종류 및 특징	33
5) 딥 클렌징(Deep Cleansing)	35
6) 딥 클렌징의 종류	35
7) 피부유형별 클렌징 사용법 및 관리방법	36
제 3 장 연구방법	39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9
제 2 절 연구설계	40
제 3 절 연구도구	41
제 4 절 자료처리 및 분석	42

제 4 장 연구결과	43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43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2) 기술통계	45
3) 명목척도에 의한 빈도조사	50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54
1) 신뢰성 분석	54
2) 요인 분석	56
제 3 절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59
제 5 장 고 찰	63
제 6 장 결론 및 제언	67
제 1 절 연구요약	67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72
참 고 문 헌	74
부 록	81
ABSTRACT	87

표 목 차

[표 2-1]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기 이온성에 따른 분류	31
[표 2-2]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징제품 종류 및 특징	34
[표 3-1] 연구항목에 따른 설문내용 및 문항	41
[표 4-1] 일반적 특성	44
[표 4-2] 기술 통계량	46
[표 4-3] 피부관리에 대한 빈도분석	50
[표 4-4] 클렌징제품 인지에 대한 빈도분석	51
[표 4-5] 클렌징제품 사용실태에 대한 빈도분석	52
[표 4-6] 클렌징제품 만족에 대한 빈도분석	53
[표 4-7] 피부관리 인지정도 신뢰도 통계량	54
[표 4-8]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신뢰도 통계량	55
[표 4-9] 피부유형과 피부관리 실천태도 신뢰도 통계량	55
[표 4-10] 피부관리요인 회전된 성분행렬	56
[표 4-11] 클렌징제품 사용실태요인 회전된 성분행렬	57
[표 4-12] 피부유형요인 회전된 성분행렬	58
[표 4-13] 피부관리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상관관계 분석	60
[표 4-14] 피부관리와 피부유형 세안간의 상관관계 분석	61
[표 4-15]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유형과 세안간의 상관관계 분석	62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 설계도	40
[그림 4-1] 피부관리, 클렌징 인지도, 클렌징제품 인지도	47
[그림 4-2] 피부유형	48
[그림 4-3] 피부관리 실천행위	4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피부를 갖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피부 관리는 그 중에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고,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진 사람은 한층 더 피부관리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된다.

깨끗한 피부는 미(美)의 일차적 기준이 되었고, 아름다움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피부 관리는 피부 생리 기능을 자극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 시키는 기술이므로, 젊고 아름다워 보이는 얼굴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부 관리가 요구 되어 진다¹⁾.

외모지상주의 시대로 불리어지고 있는 21세기에는 외모를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피부관련 산업이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안’이라 할 수 있다. 피부관리의 첫 단계가 세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지우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더욱 더 세심하고 꼼꼼한 세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잘못된 세안은 오히려 피부를 더욱더 건조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염된 외부 환경과 건조한 실내 환경 등의 원인으로 인해 클렌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현재 공통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나 황사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1) 이지영. (2013). “외모 관리 행동의 통제요인에 따른 차이분석: 피부관리행동 중심으로.”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16(2): 185-192.

2) 도은정. (2009). 『메이크업 후 피부개선 방안 연구: 20대 여대생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현대인들은 항상 오염인자에 노출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인해 피부 노화 및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다.

클렌징이란 사전적 의미로 ‘얼굴의 화장을 깨끗이 닦아 내는 일’ ‘세정’ 또는 ‘정화’를 의미하는데,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해줄 뿐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과정을 말한다.

올바른 클렌징으로 피부 및 모공의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해주어 피부를 맑고 청결하게 하고 피부활력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클렌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클렌징은 건강한 피부관리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심리적인 청량감으로 심신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주기도 한다.³⁾

대부분의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은 미적으로 외모를 개선시켜 주기는 하지만, 이는 모공을 막고 피부자체에서 분비되는 땀이나 피지나 각질, 노폐물 등과 함께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피부는 항상 외기에 노출되어 심각한 먼지나 유해산소 등의 오염물질의 피해를 받고 있으며⁴⁾, 피부에 바르는 색조 화장품은 모공에 부착되어 피부의 호흡이나 피부 톤, 피부색에 영향을 주며, 또한 피부 자체의 생리기능으로 인해 분비되는 노폐물로 피부는 더러워지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강한 자극을 주는 유리지방산으로 변하여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⁵⁾

이러한 영향은 화장품 잔여물 등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 호르몬 작용과 신진 대사 등의 생리 기능을 방해하여 여드름, 노화, 색소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⁶⁾

현대 사회는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또한 많아지면서 다양하고 짙은 메이크업과 환경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피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장선일 외 11인. (2010). 『미용학 개론』. 경기: 광문각, p.108.

4) 김종임. (2007). 세안(클렌징)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조사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5(2): 15-25.

5) 한영숙 외 4인. (2008). 『피부미용학』. 서울: 청구문화사, p.45.

6) 이은주, 임미현, 구희연, 신은경, 안미자, 황완균. (2009). “여중고생의 색조화장 실태 및 클렌징에 대한 태도.” 『대한피부미용학회지』, 7(4): 327-337.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피부관리에 관한 개념 및 지식부족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대상자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닌 대중적인 시대가 되었다⁸⁾. 또한 최근에는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문제성 피부 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피부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한의원 등에서 다양하게 메디컬 피부관리를 운영하고 있다.⁹⁾

여드름, 노화, 기미, 아토피 등의 염증성 질환 치료법으로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피부의 건강한 상태의 유지를 위해 시술 전후 깨끗한 클렌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메디컬 스킨케어에서 클렌징은 피부 노폐물이나 오염물질, 화장품 등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지만, 탈락되지 못한 피부의 각질도 제거한다. 이때 스팀 타올이나 증기연무기로 사용하면 피부의 각질층이 부드러워지고 피부 모세혈관의 미세순환에도 도움을 준다.¹⁰⁾

이런 시대상을 반영하여 피부관리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만,¹¹⁾ 얼마나 자신의 피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피부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는 많이 미흡하다. 효율적인 피부미용 관리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그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역시 적절히 관리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피부관리를 위한 클렌징의 중요성이나 클렌징 습관이 피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 논문과 피부 미용 및 화장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아직 클렌징제품 사용에 따른 피부상태와 만족도 등에 관한

7) 신명선. (2006). 『피부관리실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 김미영. (2009). 『대학생들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수준 및 행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노상은, 김현서. (2014). “일반피부관리와 메디컬피부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재이용의도.” 『한국미용학회지』, 20(2): 207-216.

10) 김현옥, 이영숙, 장선일. (2000). 『메디컬 스킨케어』. 서울: 훈민사, p.104-105.

11) 최정연. (2010). 『성인남성의 피부지식 및 자가 피부관리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연구는 많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안 습관이나 세안행동을 수정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피부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²⁾는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피부유형에 맞는 올바른 클렌저 선택과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정도를 조사 분석하고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적절한 클렌징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올바른 사용방법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적 자료 제공과 제품개발 및 피부관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12) 이은숙. (2009). 『세안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들의 피부관리 실천행위와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 .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파악을 통해 자신의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피부상태, 피부관리 제품에 대한 인지정도, 피부관리 실천행위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조사 대상자의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 변화요인, 사용 실태, 사용 후 만족도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 문제 3. 조사 대상자의 피부유형에 관한 실천행위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 문제 4. 조사 대상자의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피부관리, 피부유형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피부관리(Skin Care)

1) 피부관리 개요

피부관리는 피부와 관리의 합성어이다.

먼저 ‘피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피부(皮膚)또는 살갗은, 체내근육들과 기관을 보호하는 다수의 상피(epithelial)조직으로, 외피 체계(integumentary system)중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색소 형성은 개체군(인종)등에 따라 다양하고, 피부 타입은 건성 피부부터 지성 피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피부는 외부 환경을 접할 때,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부의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면 단열(insulation)과 체온 조절 기능, 감각 기능, 비타민 D의 합성과 비타민 B 엽산염(folates)의 보호 기능 등이 있다.¹³⁾

‘관리(管理)’의 사전적 의미는 시설(施設)이나 물건(物件)의 유지(維持)·개량(改良) 따위를 꾀하는 것이다.¹⁴⁾ 즉 피부관리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서술하면 인체를 보호하는 외피체계 조직인 피부를 유지·개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피부과학과 더불어 피부관리는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피부 상태에 대하여 병원에서 시행하는 의학적 피부관리(메디컬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미용적 피부관리 및 비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피부관리를 포함한다면 피부관리는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치료, 경피 약물투여, 탈모 치료, 외과적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 후 피부회복, 노화피부의 개선, 부종의 개선 등을 ‘의학적 피부관리’ 라고 하고, 반면

13) <https://ko.wikipedia.org/wiki/> 위키사전 2016년 6월 20일 수정본

14) <http://dic.daum.net/word/> 다음사전 2017년 2월 16일 검색

정상적인 피부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피부관리는 ‘미용적 피부관리’라 하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 분석이나 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이 여기에 속한다¹⁵⁾.

피부관리는 성형 수술이나 주름 제거 수술과는 달리 피부가 지닌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켜 젊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것으로 내적, 외적요인으로 인한 문제를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예방하고 피부의 생리기능을 자각함으로써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미용기술을 말한다.¹⁶⁾

또한 얼굴 피부유형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를 말하며, 피부표면의 성질을 언제나 새롭고 젊은 세포들로 피부가 형성되도록 피부자체 건강을 유지하고 미화(美化)시키는 미안술(美顔術)이며, 이를 응용하여 피부의 미와 건강을 유지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부 관리는 피부 및 근육의 생리기능을 높여서 건강을 유지시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피부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피부관리 기기 및 화장품을 사용한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건강한 피부의 유지 및 미용상 문제성 피부를 개선하고 더 나은 용모를 가꾸기 위한 행위이다.¹⁷⁾ 이에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극적인 건강행위를 실천함으로써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생활패턴과 피부상태의 관련성 여부를 통해 피부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¹⁸⁾

피부관리 정의는 크게 의학적 측면과 미용적 측면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15) 채인수, 박경덕, 박준수, 정현. (2014). “편평사마귀의 발생 피부관리실과 병의원에서의 피부 관리가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과학회지』, 52(12): 858-863.

16) 최은정. (2005).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7) 박서영, 오설아, 소영진. (2016). “20대 여대생의 피부 관리 이용실태 및 고객 만족도.” 『한국 미용학회지』, 22(3): 552-559.

18) 김연진, 김경애, 정연강. (2003). “중년 여성의 피부건강관리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 조사.” 『중앙간호논문집』, 6(2): 83-91.

가) 의학적 피부관리의 정의

2004년 성형외과 저널에 발표된 “Incorporating Skin care into a Facial Plastic Surgery Practice” 논문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메디컬 스킨케어와 한국의 메디컬 스킨케어는 서비스내용과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내용의 의미는 같다¹⁹⁾고 했다. 한국의 경우, 메디컬 스킨케어란 “의학적인 치료와 스킨케어가 결합된 것(Combination of medical Cure and Skin care)으로,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치료와 피부미용 관리를 하는 것”(피부과개원의협의회, 2002)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²⁰⁾

의학적 피부관리는 의사가 환자의 연령이나 피부유형 등을 고려 해 피부 문제점을 파악하는 피부 진단과 함께, 환자의 상태에 따라 피부과학에 기초를 둔 피부 관리 프로그램으로 처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²¹⁾

현재 여드름, 기미, 색소 침착, 안면 홍조, 체형교정, 비만치료, 탈모 치료 등 레이저 시술 후 피부회복의 촉진, 노화 피부개선 등 여러 원인에 의한 많은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²²⁾ 즉, 의학적 피부관리란 병원에서 시행 되는 피부의 사후 관리를 말한다.²³⁾

이는 의료기기 및 전문적인 화장품을 이용하여 의료적 치료와 처방 및 이와 관련된 피부관리를 병행하여 피부치료와 피부관리를 시행하는 것이다.²⁴⁾

또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학적 스킨케어이며, 일반 병·의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색소 질환, 여드름, 혈관성 질환, 노화피부 등의 문제성 피부를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다.²⁵⁾

19) 김영미. (2006). 『메디칼 스킨케어에 대한 인식과 지불의사 (WTP) 가격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 배분자, 윤천성. (2011). “에스테틱과 메디칼 스킨케어의 현황 분석 및 뷰티 산업의 개선 방향 연구.” 『한국뷰티산업학회』, 5(1): 59-82.

21) 이상주. (2006). “의학적 피부 관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4(2): 1-5.

22) 여운철, 정찬우, 한승경, 김홍직, 한을남, 박기범, 최광호, 목혜수, 문병천, 김용상, 최성우, 황선영, 임이석, 김방순, 김석민, 김형주, 정혜신, 민경식, 이상준, 차승훈, 최석주, 심재홍, 이근수, 민복기, 황지환, 허창훈. (2009). “의학적 피부관리를 위한 의료기기의 사용과 법률에 대한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47(11): 1236-1245.

23) 표영희 외 6인. (2007). 『메디컬스킨케어』. 서울: 파워북, p.2.

24) 김봉인 외 8인. (2012). 『메디컬 에스테틱』. 서울: 메디시언, p.10.

25) 신진영. (2009). 『메디컬 스킨케어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 일반 피부관리의 정의

메디컬 스킨케어와 비교해 보면 일반 피부관리란 “정상인의 피부를 대상으로 피부 건강이나 아름다움을 위해 시행되는 관리”를 말한다.²⁶⁾ 얼굴과 신체상의 문제점 들을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핸드 테크닉(hand technic) 및 피부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전신 미용술을 말한다.²⁷⁾

여성들이 통상적으로 마사지를 받는다고 말하는 부분은 단순한 손기술 (Manipulation)에 의한 마사지(Massage)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아름답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법이며,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대상으로 하여 클렌징이나 각질제거, 영양투입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일반 피부관리란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피부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변화 시키는 과정으로 피부유형에 따른 미용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 개선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⁸⁾

일반 피부관리는 치료 차원이 아닌 피부에 유효성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여 손이나 미용기기 등을 이용하여 피부의 생리기능을 높여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 관리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²⁹⁾.

26) 김명숙. (2003). 『피부관리학』 . 서울: 현문사. p.61-62.

27) 강명희 외 4인. (2008). 『피부미용사』 . 서울: 혜성출판사. p.18.

28) 김신희, 송명언, 정성화. (2013). “성인 여성의 피부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 38(2): 65-74.

29) 윤미진. (2012). 『피부관리실 형태에 따른 연령선호도 연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피부관리의 유형별 분류

과거 피부관리는 손을 주로 이용하는 방식에 치중해왔으나 오늘날 IT산업 발달로 인해 성능이 뛰어난 피부관리 기기를 사용하는 관리의 비중이 커졌다.

현재의 피부관리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해 수기요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를 이용한 관리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보조기구로는 전동 브러시(Brush machine, Frimator), 스티머(Steamer Machine), 고주파기기(High Frequency), 갈바닉(Galvanizer), 패러딕(Paradic), 진공흡입기(Vacuum suction), 초음파기(Ultra Sound), 미세전류(Microcurrent Treatments), 스프레이(Spray, Lucas), 리프팅기(Lifting Frequency)³⁰⁾ 등 여러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³¹⁾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는 단순히 손과 제품만을 이용하는 피부관리가 아닌 전기에너지로 작동되는 미용기기를 통한 관리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긴장을 주거나 완화시켜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탄력을 상승시키며, 짧은 시간동안 화장품에 함유된 유효성분을 피부에 침투시켜 흡수력을 극대화시키고 세안효과를 높여 청결함을 주고 피부 결을 균일하게 정리해준다.³²⁾

피부관리는 크게 치료와 미용목적을 함께할 수 있는 메디컬 피부관리와 일반 피부관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피부관리에는 에스테틱 살롱(Aesthetic Salon)에서 행해지는 전문관리(shop care)와 가정에서 행해지는 개인관리(home care) 두 가지를 포함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피부관리는 피부건강 유지와 개선 노화방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각 개인의 피부유형에 맞는 올바른 피부관리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손상된 피부를 증진·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30) 김춘자. (2008). 『실전 전기미용기기학』. 서울: 훈민사. p.87-130.

31) 강수정, 오윤경, 문덕환. (2015). “전기영동관리에 따른 건·지성피부의 유·수분도 및 탄력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6(2): 97-108.

32) 차은정. (2015). 『안면용 피부미용기기 이용 및 구매 실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가) 의료적 피부관리(Medical Skin Care)

의료적 피부관리는 기미, 주근깨, 검버섯, 여드름, 혈관성 질환, 노화된 피부 등 다양한 피부 질환 및 나이와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노화현상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메디컬 스킨케어 기술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피부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벗겨낸 후 새로운 피부가 다시 재생 될 수 있게 유도하는 박피 요법(Peeling)

둘째,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진피층 까지 약물 등을 직접 침투시키는 주사 요법

셋째, 고주파, 초음파, 스킨 스크러버(Skin Scrubber)등 각종 의료기계를 이용한 기계 요법

넷째, 레이저광선(빛)을 이용한 레이저 요법 등이 있다.

위의 기술들은 피부의 문제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³³⁾

(1) 박피술(Peeling)

박피란 메디컬 스킨케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법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며 특수한 기구나 약물,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인위적으로 벗겨내는 기술이다.

박피는 어떻게 벗겨내느냐에 따라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박피술, 연마기나 금속성 팁이나 크리스탈 가루를 이용한 물리적 박피술,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박피술로 나뉘며, 얇은 박피, 중간 정도 깊이의 박피, 그리고 진피 상층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깊은 박피로 분류된다.

33) 오수연, 이영선. (201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의 스킨케어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18(2): 310-318.

(가) 화학적 박피술(Chemical Peeling)

① TCA(Trichloroacetic acid) 필링

TCA는 단백질을 응고 시키는 아세트 산의 일종이며, 표피와 진피 상부를 피사시킨다. 메디컬 스킨케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학적 박피는 주근깨, 검버섯, 점 등의 색소가 침착된 부분이나 미세한 주름 개선에 필요한 부위에 중간 농도의 TCA를 국소적으로 이용하면 만족스런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레이저 필링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② 제스너(Jessner)필링

제스너 용액은 살리 실산(salicylic Acid), 레소시놀(resorcinol), 젖산(lactic acid), 에탄올(ethanol)등의 배합으로 만들어 진다. 제스너 필링은 여드름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박피 로써, 여드름의 치료와 함께 피부를 한겹 벗겨내기 때문에 여드름 제거 외에도 피부가 매끄럽고 맑아지고 촉촉해 지며, 화장이 잘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③ 글리콜린산(Glycolic acid)필링

글리콜린산은 알파하이드록시산(Alpha-Hydroxy Acid, AHA)에 속하는 대표적인 화학 박피물질로서 사탕수수에서 추출된다. 여드름, 확장된 모공, 잔주름, 잡티, 검버섯, 기미 등의 치료개선에 주로 이용된다.

AHA가 얇은 박피술에 이용 된 이후 글리콜린산은 메디컬 스킨케어에서 여드름 및 과색소침착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글리콜린산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속도가 빠르고 필링 효과가 크며, 필링의 강도를 자유자재로 조절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물리적(기계적)박피술

① 다이아몬드 필링 (Diamond peeling)

다이아몬드 필링은 단단한 천연광물인 다이아몬드 팁을 피부에 적용하여

피부조직을 탈피시키는 물리적 필링으로, 다이아몬드 입자와 강한 진공 압을 이용하여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을 깎아내어 피부를 재생시킨다.

다이아몬드 필링은 인체에 무해하고 피부색에 상관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어떤 계절에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술시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크리스탈 필링(Crystal peeling)

크리스탈 필링은 미세한 산화알루미늄(aluminium oxide)이라는 미세한 크리스탈 입자들을 피부에 강하게 분사하여 피부의 노폐물과 각질 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함과 동시에 입자와 연마된 조직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미세 박피술을 말한다.

(다) 레이저 박피술(Laser peeling)

레이저 박피술은 울트라 펄스형 이산화탄소 레이저나 어븀 야그(Erbium-Yag) 레이저를 이용해 조직에 열을 가하여 순간적으로 피부가 기화되어 피부의 탈락을 유도하는 시술이다. 레이저 빛이 피부조직에 흡수되면 열 에너지로 변환 되어 작용을 하게 되는데, 피부조직에 열에너지가 전달되면 조직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50℃ 이상에서는 조직에 비가역적인 흉터가 생길 수 있지만, 50℃ 이하에서는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도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피부의 표피층은 탈락시키고 진피 층에 열 손상을 입힌 후 콜라겐 반응을 촉진시키면 노화 피부, 여드름흉터, 주름제거 등에 효과적이다.

(2) IPL(Intense Pulsed Light)

IPL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강한 펄스(Pulse)형태로 방출시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 시 매우 효과적이다. IPL은 낮은 파장의 빛으로 표피손상은 줄이고 피부 깊숙이 효과를 주어 기미와 주근깨 등의 색소성질환과 안면홍조 등의 혈관성질환 및 여드름 치료, 모공과 노화된 피부 및 체모 등에도 큰 효과가 있다.

주근깨나 잡티 등의 색소침착은 한 번의 IPL 치료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모공이나 피부 결 개선 등은 IPL의 에너지가 진피 층에 도달하여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 합성을 촉진함으로써 얻어진다.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가 기미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색소뿐만 아니라 기미 치료에도 IPL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PL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을 직접 사멸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킨다.

(3)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가늘고 정교한 200여개의 바늘로 이루어진 메조롤러를 이용해서 피부에 물리적으로 상처를 내어 약물이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바늘의 자극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 혈소판 안에 있는 성장인자들이 피부의 진피에 있는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킨다.

주근깨, 잡티, 기미 등의 색소성질환이나 주름개선, 리프팅, 탈모에도 효과가 좋으며 특히 튼 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다.

(4) PDT(광역동 요법, Photodynamic Therapy)

빛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광 감작제(aminolevulinic acid)를 얼굴에 도포한 후 특수한 파장을 가진 레이저로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치료법이다. 또한 여드름 균을 사멸시켜 피지선이 깨끗해지고, 각질세포들을 탈락시켜 막혔던 모공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

(5) 레이저 치료(Laser Therapy)

레이저(Laser)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합성어로, 특수한 성질을 갖는 빛(light)을 말하며 한 가지 성질의 빛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메디컬 스킨케어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질환은 색소성질환, 혈관성질환, 노화 피부, 제모 등이 있다.

나) 미용적 피부관리(Cosmetic Skin Care)

미용적 피부관리 중 대표적인 수기요법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손을 사용하여 피로를 풀거나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요법으로³⁴⁾, 부드럽게 쓸어주거나 두드리고 누름으로써 통증을 없애곤 하였다.³⁵⁾

피부미용에서의 마사지는 신체에 활력을 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혈액순환촉진과 림프 순환을 도와 고통을 완화시키며 진정시키는 행동이다. 진피 층의 세포활동을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 노화된 피부와 기타 분비물 및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이고,³⁶⁾ 또한 피부 내에 필요한 영양 공급으로 세포생성을 도와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주며 자연 치유력을 높여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³⁷⁾

이처럼 수기요법은 신경계, 근육계 등의 우리 몸의 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피부건강은 물론 질병 까지 예방 할 수 있다.

일반 피부관리 에서의 마사지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스웨디쉬 마사지(Swedish Massage)

현대의 마사지는 스웨덴의 체육학자이자 생리학자인 헨릭 링(Dr. Per Henrik Ling 1776-1839)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는 자신의 류마티스(rheumatism)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하던 중 마사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스웨덴 치료 제조라고 알려진 것에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분류를 했다.

스웨디쉬 마사지는 에플라쥐(Effleurage; 쓰다듬기), 페트리사지(Petrissage; 주무르기), 바이브레이션(Vibration; 진동법), 프릭션(Friction; 마찰법), 타포트먼트(Tapotement; 두드리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심장을 향해 혈액이 쉽게 순환될 수 있도록 말초 에서부터 심장으로 부드럽

34) 최숙경, 이정숙, 송제호. (2011). “수기요법 기술이 비만여성의 신체조성과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및 내장지방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3): 1-16.

35) 김대옥. (2012). 『동양의 수기 마사지 비교연구 : 아유르베다와 경락 마사지의 비교연구』. 과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6) 심현실. (2013). 『뷰티테라피 선택 유형에 따른 피부 건강관리 행태와 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7) 이명진, 권혜진. (2012). “수기요법과 기기요법의 안면피부 상태변화.” 『한국미용예술학회지』, 6(4): 123-131.

럽게 마사지 하며, 다양한 수기요법을 이용하여 피부 탄력, 긴장 완화, 혈액 순환, 근육 강화, 신경이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³⁸⁾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체내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에너지를 공급하고 엔돌핀을 방출하고,³⁹⁾ 피로 회복이나 질병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감소, 불안감소, 면역력증가, 피로감 완화 등에도 효과가 있다.⁴⁰⁾

(2) 경락(經絡)마사지(Meridian massage)

경락마사지는 한의학의 ‘경락학설’과 서양의학의 기술인 ‘마사지 개념’이 합쳐진 것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⁴¹⁾

경락마사지는 서양의학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氣)의 흐름에 따라 음양(陰痒)의 조화를 바로잡고, 경혈을 자극하여 전신의 기혈순행을 조절하고 오장육부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며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⁴²⁾ 손가락, 팔꿈치, 손, 발, 무릎 등의 신체를 이용하여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기혈의 순행을 촉진시켜 피부에 영양을 주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시켜 준다. 기와 에너지를 인체에 부여하는 마사지로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방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인체의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⁴³⁾

장기적인 수기요법은 스트레스 완화 및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⁴⁾

38) 손현진. (2008). 『여성들의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9) 최선미. (2010). 『비만관리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여성의 신체구성 체력 혈중지질 검사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0) 김정화. (2009). 『마사지 종류에 따른 스트레스 경감 효과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1) 안남훈. (2010). 『족태양방광경과 족삼음경의 경락마사지가 가임여성의 월경통 완화 및 월경전 증후군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2) 남향숙. (2010). 『마사지가 피로물질과 스트레스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3) 이정란. (2007). 『경락마사지가 중년여성의 혈청, 에스트로겐, 갱년기 증상, 피로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4) 신미숙, 김애경, 송제호(2012). “수기요법이 여성의 혈액 생화학적 지수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 10(2): 253-256.

(3) 림프 드레나지(Lymph Drainage)

림프드레나지는 림프관과 림프 절 부위를 일정한 속도와 압, 리듬으로 마사지하여 정체되어 있는 림프가 원활히 순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림프계의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림프마사지는 문제성 피부증상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며 지방세포에 쌓여있는 축적물을 배설시키는데 영향을 주어 셀룰라이트(cellulite)관리에도 효과적이다.⁴⁵⁾ 또한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종이나 멍을 빨리 없애고 수술효과를 극대화시켜 회복기간을 단축시켜주며⁴⁶⁾ 과민성 피부 질환 및 독소 배출 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나 신체의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권장 되고 있다.⁴⁷⁾

림프드레나지는 주로 천부 림프계(superficial lymphatic system)에 자극을 주어 림프 흐름을 촉진시키고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과 수분, 독소를 제거해주며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균형 있게 하여 통증을 진정시키고,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준다.⁴⁸⁾

(4)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

아로마는 이로운 향기 또는 좋은 향기를 말하며, 아로마 요법이란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 영적 차원에서 치유 및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전인 치료적 요법이다. 즉, 향이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에센셜오일로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요법이라 할 수 있다.

아로마 에센셜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는 피부를 통해 향유성분은 장기에 영향을 주고 휘발되는 향은 후각신경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두뇌로 전달된 향기 입자는 호르몬을 조절하여 정서적 안정, 수면장애, 스

45) 홍연숙.(2005). 『성인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피부관리 및 체형조리실태 조사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6) 김관옥, 김성남. (2011). “탈모요인 자가인식이 건강관리와 두피 모발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26): 50-60.

47) 김성중. (2013). “엠엘디와 스웨디시 복부 마사지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변비가 있는 대학생들의 자율신경계와 변비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 11(5): 1009-1014.

48) 편이숙. (2012). 『MLD와 Aroma MLD가 폐경기 여성의 스트레스 호르몬, 에스트로겐 및 심리적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트레스 등 정신 및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고,⁴⁹⁾ 호흡기질환이나 감기, 두통, 스트레스 완화와 더불어 피부에는 보습효과도 준다.⁵⁰⁾

아로마 테라피는 몸의 면역 체계를 보호 해주고 안정시킴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치료를 동시에 하는 치료법으로 에센셜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 시키는데 효과적이다.

(5) 딥 티슈 마사지(Deep Tissue Massage)

딥 티슈 마사지란 근막(Fascis)과 심층의 근육(Deep Tissue Muscle), 결합 조직(Connective Tissue)의 심부층 까지 관리하는 마사지로써⁵¹⁾ 심부를 뜻하는 딥(Deep)이라는 단어와 조직을 뜻하는 티슈(Tissue)라는 단어를 합하여 심부층까지 세밀한 효과를 적용시켜 조직들을 잘 풀어내는 매뉴얼 테크닉이다.⁵²⁾

딥 티슈 마사지 기법으로는 반응점(Trigger point)압박, 마찰(Friction), 근막 이완기법(Myofascial release)등이 있다.

심신의 이완뿐 아니라 만성적 급성적 문제까지 다루는 치유적인 마사지로써, 딥티슈 마사지 기법은 해부학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그 수기 움직임에도 근막과 근섬유의 결을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통증 치료 시 딥 티슈 마사지는 근육 및 건 섬유조직 부위와 근막이 유착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이완될 때 까지 적용해야 한다. 또한 심부층 문제점을 치료할 시 표층 티슈부터 이완시켜주며 심부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수기 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의 딥 티슈 마사지는 응결 조직부위 및 통증을 빠르게 이완시켜 줄 뿐 아니라 혈행과 혈액량의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⁵³⁾

49) Bucle, J. (2001). 『The rple of aromatherapy in nursing car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36(1): 57-72. 재인용.

50) 박선민. (2011).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매뉴얼 테크닉과 고주파기기가 중년여성의 비만관리효과에 미치는 효과비교.” 『대한피부미용학회』, 8(1): 131-136.

51) 남태열. (2007). 『스웨디시 마사지』. 서울: 예림출판사. p.12.

52) 양지연. (2013). 『딥티슈마사지가 성인여성의 부종감소와 혈액성상 및 산화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3) 문기복. (2013). 『출산경험이 있는 전임주부를 대상으로 딥티슈마사지가 골반균형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스톤 테라피(Stone Therapy)

스톤 테라피는 자연 친화적인 테라피(Therapy)로 각광받고 있으며,⁵⁴⁾ 화산의 폭발로 생긴 현무암을 이용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그 유래이다.⁵⁵⁾

스톤 테라피는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몸의 독소제거는 물론 면역력 향상과 질병 예방 및 피부미용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⁵⁶⁾

스톤의 열은 혈액순환 증가, 관절강직 감소, 통증 완화, 진정작용, 변비완화 및 노폐물 배출, 안색정화, 피부트러블 개선, 얼굴탄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체온상승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뭉친 근육의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이며, 신체의 안 좋은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이나 여분의 지방분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발한작용과,⁵⁷⁾ 부종을 감소시키고 지방연소를 통해 균형 잡힌 몸매로 가꾸어 주며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밸런스를 조절해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 시킨다.

이러한 스톤 테라피는 심신의 조화와 안정 등 진정효과가 뛰어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7) 아유르베다(Ayurveda)

기원전 600년경 탄생한 아유르베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유(Ayur)와 ‘삶의 지식’ 또는 ‘생명의학’을 의미하며, 베다(Veda)는 ‘앎’이라는 뜻을 의미한다.⁵⁹⁾ 아유르베다 마사지는 인도에서 유래한 마사지 방법으로 병의 원인이

54) 윤지민. (2011). 『스톤테라피가 민감성 피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5) 김연진. (2007). 『스톤테라피가 변비완화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6) 한채정, 정유경, 김은희. (2010). “스톤테라피를 이용한 중년여성의 복부비만관리 효과.”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2): 223.

57) 반소정. (2012). 『스톤마사지 테라피가 복부비만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8) 오정미. (2014). 『뷰티테라피의 이용실태와 스트레스 및 불안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9) 최진선. (2015).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에스테틱 매뉴얼 제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되는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이 아유르베다 마사지 치료의학의 원리이며, 에테르(허공), 흙, 물, 불, 공기의 5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인간과 우주에 관한 홀리즘(Holism)철학이 기본이며, 모든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수많은 허브와 오일 들을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⁶⁰⁾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조절,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알콜리즘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⁶¹⁾

60) 김희경. (2010). 『아비얀가 아유르베다 테라피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1) 장현정.(2011). 『현대인의 중독에 대한 요가와 아유르베다 치유방법 고찰』 .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 2 절 피부유형(Skin Type)

1) 피부유형 개요

피부는 외부와 접하고 있는 우리 신체의 가장 겉 표면으로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체온조절, 흡수, 호흡, 비타민D의 생성작용 등을 함으로서 인체의 정상적인 활동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으면 피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데, 피부는 이런 신체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외부환경이나 일상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소, 건강장애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피부유형은 항상 변화 할 수 있다⁶²⁾. 이에 각 개인의 피부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관리법을 이해하여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2) 피부유형 결정 요인

가) 피부의 보습 상태(Skin hydration status)

피부의 보습 상태는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안면의 보습상태가 얼마만큼 수분을 함유하고 있느냐는 앞으로 진행될 피부 관리를 위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피부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내용이다.

나) 피지의 분비 상태(Sebaceous secretion status)

피부의 피지는 지질이 피부의 보습 성분인 세라마이드(Ceramide)상태로 피부에 분포되어 있으며 또, 피부의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이 작용에 의해 피부표면이 덮여 있다.

피부의 각질 세포의 형성은 표피의 배아층 에서부터 그 성장을 계속 진행해 오면 피부 외피층까지 올라와 표피층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각질화 작용 또는 각질화라고 한다.

62) 김종대. (2000). 『피부관리학』. 서울: 고문사. p.56..

각질화 작용기간은 약 한달 정도인데 나이와 개인의 대사활동에 따라 변화한다.

표피 세포가 너무 빨리 떨어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피부조직이 정상 피부보다 얇아 예민하고 투명하다. 반대로 표피가 떨어져나가는 시간이 길어 박리 현상이 늦어질 때는 피부조직이 정상보다 두껍다.

다) 피부 조직의 상태(Skin texture status)

피부 표면을 보고 만지고 관찰하여 피부조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는 모공의 크기 피부의 맑은 정도 윤기정도 등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다.

피부 표면이 정상인지, 섬세한지, 두꺼운지, 입자가 고른지에 따라 정상 피부(normal-texture), 두꺼운 피부(thick-skin), 고운 피부(fine-texture)등 으로 나눌 수 있다.

라) 혈액순환의 상태(Capillary status)

피부의 가장 표면에 분포해 있는 모세혈관에 있어서 어떤 요인에 의해 혈액순환의 양이나 속도가 지속적으로 많거나 빠를 때, 또는 혈액이 고여 있는 상태일 때 모세혈관은 피부를 통해 밖으로 노출되어 보인다.

이러한 피부를 모세혈관 확장피부라고 하는데 피부 표면이 발적(redness)되어 있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피부표면의 모세혈관 즉, 확장된 실핏줄이 그대로 탄력성을 상실한 채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 피부탄력성(Elasticity status)

피부를 만져 탄력성을 진단할 수 있다. 탄력성은 피부의 엘라스틴과 콜라겐 섬유조직의 충실도와 보습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섬세한 피부조직을 가진 예민성 피부, 민감성 피부는 겉으로 보면 탄력이 있어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보면 탄력이 없다.

체형관리를 위한 지나친 다이어트는 신체의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 제한에서 비롯되는데 이들 영양의 부족은 조직과 장기의 근육을 손상시키고 그곳에 저장된 지방 뿐 아니라, 근육까지도 에너지 화 하는데 사용된다.

진피 두께의 변화 피부지방 조직의 소모,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부조직의 허탈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피부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피부대사 기능도 늦어진다.

바) 색소 분포 상태(Pigmentation status)

피부의 색소 분포에 따라 과색소 피부(hyperpigmentation skin)와 색소 결핍 피부(hypopigmentation skin)로 분류한다.

과색소 피부는 피부의 비정상적인 색소침착 상태로 주근깨(freckles), 기미(chloasma), 잡티/흑자(lentigo), 점(spots), 검버섯(senescence spots) 등이 있다.

과색소 피부는 유전적 요인과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자극 즉, 자외선과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이다.

색소 침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햇빛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들은 빛에 반응하여, 그 세포의 수가 증가되고 멜라닌 소체들이 왕성하게 성숙한다.

색소 결핍 피부는 피부의 비정상적인 색소결핍증상 중 하나이다. 선천성 색소결핍증/백색증(albinism), 백반증(vitiligo), 흉터(scars)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영향이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하이드로퀴논에 의한 멜라닌(melanin) 색소 파괴로 인한 색소결핍이 있다.

이들 색소 결핍 피부의 관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햇빛의 차단과 멜라닌 색소의 증가 그리고 재생력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⁶³⁾

임세웅(2008)은 ‘전류인지역치를 이용한 민감성 피부 평가의 유용성’에서 성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피부가 민감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민감성 피부환자의 약 50%에서 객관적인 염증의 징후가 없으며 자양감, 소양감, 작열감 등의 주관적인 증상만을 호소한다고 한다.⁶⁴⁾ 또한 이은실(2011)은 ‘연령 및 피부타입에 따른 피부관리 실천태도와 피부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인여성은 복합성피부가 많고, 20대의 경우 지성 피부가 많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부터는 건성피부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질수

63) 광형심 외 8인. (2012). 『미용학개론』. 서울: 정문각. p.238-239.

64) 김정희, 김영희. (2015). “여대생의 피부유형별 각질단백질량에 대한 연구.” 『한국노인의료복지학회』, 7(1): 117-125.

록 피부상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피부 유형들은 각기 특성을 갖고 있으며, 올바른 피부관리, 성공적인 피부관리를 하려면 각 개인의 피부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관리법을 이해하고 적용시켜야 한다.⁶⁵⁾

피부유형별 특징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3) 피부유형별 특징 및 관리방법

가) 중성피부(Normal Skin)

중성피부는 피부조직의 상태 또는 피부생리 기능이 모두 정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피부를 말한다. 색소, 여드름, 잡티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피지선과 한선의 기능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중성피부의 특징은 피부 결이 섬세하고 매끄럽고 피부가 촉촉하여 윤기가 나고 모공이 작고 탄력성과 혈색이 좋다. 각질층의 수분함량이 10~20%로 정상이고 혈액 순환이 좋아 신진대사가 원활하다. 세안 후에 피부 당김이 나타나다가 곧 사라지며 메이크업이 잘 되고 오랫동안 화장이 지속된다.

중성피부의 관리방법은 정상피부 조직의 상태 또는 피부생리기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적인 피부이므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수분관리가 필요하다.

나) 건성피부(Dry Skin)

건성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너무 적고 피부표면에 각질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윤기가 없고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이다. 그러므로 적당한 유분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매뉴얼테크닉과 팩 등의 보습 관리도 해주는 것이 좋다. 땀과 피지분비가 원활하지 못하여 내적·외적 환경에 자극받기 쉽고, 노화가 빨라지는 피부로 많은 주의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

건성피부의 원인을 살펴보면 한선이나 피지선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여

65) 김명숙. (2009). 『이론과 실제 피부관리학』. 서울: 현문사. p51.

피지막이 불안정 하고, 각질층이 얇거나 알콜(alcohol)이 다량 함유된 화장을 장시간 사용했을 경우에도 나타난다. 또한 기온변화를 자주 접했을 경우나 호르몬의 불균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건성피부의 특징은 윤기가 없고 각질이 일어나 거칠어 보이며 피부의 탄력이 부족하고, 모공이 매우 작다. 세안 후 피부 당김이 심하고, 눈가나 입가에 잔주름이 많이 나타나며, 색소 침착도 쉽게 일어나고 저항력이 약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건성피부의 관리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을 취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유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화장은 피하고 수분 함량이 많은 화장을 사용 한다. 주기적인 각질 제거와 보습이 충분한 팩이나 마스크시트로 순환 촉진 관리를 한다.

다) 지성피부(Oily Skin)

지성피부는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어 피지와 노폐물 등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피부이며 한선이나 피지선의 활동이 필요이상으로 촉진되어 피부 표면이 번들거리며 모공은 열려진 상태로 넓어지는 피부유형 이다.

지성피부의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크며 호르몬제의 오용이나 사춘기 호르몬의 불균형, 스트레스에 의한 원인과 영양소 과다섭취 등이 피지선을 자극해 피지 량이 증가한다.

지성피부의 특징은 피부 결이 거칠고 각질층이 두꺼우며, 모공이 넓고 외부 자극에 대해 높은 저항력을 갖는다. 높은 기온이나 외부 열, 햇빛 등의 원인에 의한 색소침착이 빨라진다.

피지가 많이 쌓여 블랙헤드와 여드름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나 윤기와 탄력이 있어 노화의 진행이 느리고 잔주름도 쉽게 생기지 않는 편이나 과다한 피지로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는 피부이다.

지성피부의 관리방법은 이중세안을 하며 주기적으로 딥 클렌저와 필링제를 이용하여 모공 속의 과다한 각질 및 피지를 제거하고, 유분감이 적은 지성 피부 전용 화장품 사용으로 피지 관리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관리를 권

장한다.

과다한 피지제거는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분비를 더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재생관리를 병행하여 모공이 확장된 피부를 관리하고,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한다.

라) 복합성 피부(Combination Skin)

복합성 피부는 두 가지 이상의 피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피부로, 건조함과 과도한 유분감을 가지고 있어 좀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복합성 피부의 원인은 환절기나 피부에 알맞지 않은 화장품을 장시간 사용 시에도 복합성 피부가 되기 쉽고,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연령, 기온변화에 의해서도 복합성 피부가 될 수 있다.

복합성 피부의 특징은 피부 결이 고르지 않고 T-zone 부위인 이마 중앙부터 턱의 중심부에는 유분기가 많고, 눈가나 뺨 등의 U-zone부위는 당기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보인다.

복합성 피부의 관리 방법은 T-zone, U-zone 부위의 각 부분의 상태에 따라 보습과 피지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T-zone부위의 관리는 각질제거를 위한 팩을, U-zone부위는 보습이나 영양 팩으로 관리해 준다. 색소침착 방지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바른다.

마) 민감성 피부(Sensitive Skin)

민감성 피부는 선천적인 요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연령이나 피부유형에 관계없이 성격이 예민한 경우에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50%가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이는 심리적, 정신적 요인 과도 매우 큰 연관성을 갖고 있다.

민감성 피부의 원인은 외부 환경적 자극, 과다한 필링 등 잘못된 관리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갱년기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 요인은 다양하다. 또한 과도한 자외선의 노출이나 영양소 결핍으로도 민감성 피부가 되기도 한다.

민감성 피부의 특징은 피부가 얇고, 건조하기 쉽고, 외부환경 등 자극에

민감하며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피부색은 투명하나, 당기고 각질도 잘 일어난다. 모세혈관이 피부 표면에 드러나 보이고 잔주름이 쉽게 형성되며 색소침착의 위험도 크다.

민감성 피부의 관리 방법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습과 진정,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따뜻한 물 세안, 부드러운 타입의 모이스춰라이저(moisturizer)를 사용하되 지나친 유분 공급은 피한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신다.

바) 여드름 피부(Acne Skin)

여드름 피부는 피지분비가 많은 부위인 얼굴, 목, 가슴, 등에 주로 발생하는 비염증성 또는 염증성 질환이다.

여드름은 비염증성인 면포, 염증성인 구진, 농포, 결절, 낭종 등으로 구분한다. 여드름 균이 증식하면 모공확장, 색소침착, 곱썩질 모양의 흉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드름 피부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지가 많이 생기고 모공이 막혀 피지 배출이 되지 않아 발생된다.

주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사춘기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과잉 피지분비, 스트레스나 위장장애, 변비, 수면부족, 음주, 환경오염, 위생결핍 등 여러 원인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여드름 피부의 특징은 피부 결이 거칠고 뽀루지(모낭염)등이 잘 생기며 모공이 넓고 눈에 잘 띈다. 또 피부표면이 두껍고 피지분비가 많아 지저분하고 건조하여 각질이 잘 일어난다.

여드름 피부의 관리방법은 보습, 피지조절 등 유분, 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며, 알칼리성 비누는 여드름 균의 번식을 초래하여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여드름 전문 세정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세안한다.

제 3 절 클렌징(Cleansing)

1) 세안의 정의

피지 노폐물 오염물질 등이 피부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들이 산패되거나 미생물이 서식하게 되어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나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피부관리의 첫 단계인 세안이라 할 수 있다⁶⁶⁾.

세안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피부 관리 과정이라 할 수 있고, 피부 미용의 첫 단계이며 전체 피부관리 효과를 좌우하는 행위이다.⁶⁷⁾ 세안의 사전적 의미는 ‘얼굴을 씻음’으로 피부표면의 피지와 내인성 오염, 외인성 오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피부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다.

특히 색조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성인 경우 지나친 세안으로 피부건조, 착색문제, 모공의 막힘, 탄력저하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 한다⁶⁸⁾.

외부적인 요인 뿐 아니라 피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세안은 상당히 중요하다⁶⁹⁾. 만약 피부에 불순물이 남아 있을 경우 피부의 모세혈관 수축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피부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⁷⁰⁾

세안은 피부표면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청결 및 라이프 싸이클(Life Cycle)을 유지함으로써 피부 본래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⁷¹⁾. 그러므로 지나친 세정과 과다한 탈지는 피부가 필요로 하는 정상적

66) 박찬익, 김보예, 양재찬. (2009). “Solubility parameter를 이용한 다층 클렌징 오일에 관한 연구.” 『한국유화학회지』, 26(3): 240-247.

67) 손영주, 정민수. (2016). “여고생의 피부 유형과 세안 인식, 세안 실천 간의 연관성.” 『한국미용학회지』, 22(2): 451-460.

68) 송정희, 김봉조, 최은정. (2010). “20, 30대 여성들의 세안 실태와 클렌징 오일이 얼굴 피부건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4): 1-12.

69) 강다인. (2015). 『세안제의 종류와 세안 방법이 안면 피부의 클렌징 효과와 유수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0) 하병조. (2009). “세안화장품의 기기적 효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5(1): 1-5.

71) 홍지연. (2013). 『성인남성의 클렌징(Cleansing)과 딥클렌징(Deep Cleansing)에 대한 인식도와 사용실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인 피지나 천연보습인자(NMF)성분까지 손실시켜 피부보습이나 보호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유형과 피부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세안제를 선택하여 올바른 세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⁷²⁾

2) 세안제의 종류

세안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계면활성제의 화학적인 작용을 이용한 것과 용제나 유성성분이 함유된 용매에 의한 용해작용을 이용한 것이 있다. ‘계면활성제(surface active agent, surfactant)’란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 자유에너지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는 물질, 즉 계면 활성을 하는 물질을 총칭하여 계면 활성물질이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합성된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화장품에서의 계면활성제의 역할이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세정작용, 제형적인 측면에서는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유화작용, 그 외에 난용성 물질의 용해성을 증가시켜주는 가용화작용, 무기분체 등을 분산시켜주는 분산작용이 있다.

계면활성제형 에는 고체(Soap)타입, 크림(Paste, Foam)타입, 액체(Water)타입, 발포(Foam Shave, After Foaming)타입을 들 수 있고, 용제형 에는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크림(Paste, Foam)타입, 밀크(Milk)타입, 액체타입(Water), 젤(Gel)타입, 오일(Oil)타입을 들 수 있다.⁷³⁾

최근 색조화장품들은 화장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땀과 물에도 잘 지워지지 않는 내수성을 가진 화장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물로만 씻어내서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

따라서 색조화장품의 유성성분을 세정하기 위한 용제형 세안제로 닦아낸 후 계면활성제형 세안제로 씻어내는 이중세안이 필요하다.⁷⁴⁾

72) 조연환. (2013). 『세안제의 선택적 속성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3) 김종임. (2007). “세안(클렌징)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조사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 5(2). 15-25.

74) 김경영, 배유경, 이은주, 김수미, 김은애, 안선례. (2015). 『화장품학』 . 경기: 메디시언. p.147.

가) 계면활성제형 세안제

계면활성제형 세안제는 물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세안제를 말한다.

용액을 손에 적당량 덜어 물과 함께 섞어주면 기포를 형성하는데 이 기포를 이용하여 피부의 노폐물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⁷⁵⁾

계면활성제는 분자내에 친수성 그룹(hydrophilic group)과 친유성 그룹(lipophilic group)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쪽 친매성 물질(amphipathic)로 계면을 화합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⁷⁶⁾ 수용액 내의 표면 활성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전하의 종류에 따라 4가지 타입 으로 나뉜다.⁷⁷⁾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비이온성(nonionic), 양쪽성(zwitterionic), 양이온성(cationic), 음이온성(anionic)등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sorbitan monoleate, polyoxyethylene ether)는 낮은 독성 과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에멀전에 주로 사용 한다.⁷⁸⁾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물에 용해되었을 시 친수기 부분이 음이온(anion)으로 해리될 때 세정력이 가장 좋고 거품성 또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⁹⁾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살균 작용과 대전 방지 기능이 있으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거품성이 낮고, 피부 자극이 적다.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피부 자극이 적으며 세정능력을 가지고 있다.⁸⁰⁾

75) 이성욱 외 2인. (2011). 『최신 화장품 과학』 . 서울: 광문각: p.316-319.

76) 임선형, 곽선순, 김애경. (2010). “세안화장품 사용에 따른 20대 여대생의 피부상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 8(4): 1-14.

77) 김인옥, 배현숙. (2012). “계면활성제형 세안제와 용제형 세안제 사용에 따른 피부 상태의 변화.” 『대한피부미용학회지』 , 10(3): 549-558.

78) Tenjarla S, Microemulsions. (1993). An overview and pharmaceutical applications. Crit. Rev. Ther. Drug. 16: 46-521. 재인용.

79) 김인옥. (2012). 『계면활성제형 세안제와 용제형 세안제에 따른 피부 상태의 변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80) 박인정. (2007).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혼합 미셀화에 대한 연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 용제형 세안제

용제형 세안제는 주로 물에 녹지 않는 오염 물질이나 유성 원료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얼굴에 마사지하듯 가볍게 문질러 피부의 노폐물이나 오염물질과 잘 섞은 후 제거하는 방식이다. 주로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이용되고 있다.⁸¹⁾

용제형 세안제의 종류로는 크림타입의 클렌징크림, 유액타입의 클렌징 밀크 로션, 액상타입의 클렌징 로션, 클렌징 젤, 클렌징오일 등이 있다.⁸²⁾

[표 2-1]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기 이온성에 따른 분류

분 류	특 징	성 분	종 류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 살균, 소독작용 · 유연효과, 정전기 발생 억제 · 피부자극 강함	· 알킬트리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 · 알킬트리메틸암모늄 브롬화물 · 벤잘코늄클로라이드	헤어트리트먼트, 헤어린스, 섬유유연제 등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 세정작용, 기포 형성 작용 · 탈지력이 강해 피부가 거칠어짐	· 고급지방산 비누 · 알콜황산에스테르염 · 소디움라우릴설페이트 · 알킬에테르황산염	비누, 샴푸 클렌징 폼, 바디클렌저
양쪽성 계면활성제	· 음이온성과 양이온성을 동시에 가짐 · 피부자극과 독성이 적고 정전기 억제 · 세정력, 살균력, 유연 효과와 피부 안정성	· 코카미도프로프로필베타인 · 코카미도프로필하이드록시설테인 · 라우라미도프로필베타인	베이비 샴푸, 저자극 샴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 물에 용해되어도 이온이 되지 않음 · 저 자극 기초 화장품 분야에 많이 사용 · 피부에 대한 안전성, 유효력 우수	· 글리세린지방산에테르 · 솔비톨지방산에스테르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폴리옥시에칠렌 지방산에스테르	화장수의 가용화제, 크림의 유화제 등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81) 김주덕 외 5인. (2004). 『신화장품학』. 서울: 동화기술. p.420-426.

82) 진종언 외 4인. (2011). 『화장품학』. 서울: 정담미디어. p.118-123.

3) 클렌징의 목적 및 필요성

피부는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땀, 염분 등의 물질이 존재하며, 산소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의 영향으로 산화, 분해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피부 위에 남아 있는 노폐물을 없애는데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과정을 클렌징이라 한다.(Hawkins, 2004)⁸³⁾

클렌징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피부의 정상적인 분비작용,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모공이 막혀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으로 작용 한다.(Bikowski, 2001⁸⁴⁾; Draelos, 2006⁸⁵⁾)

일반적으로 클렌징은 메이크업 시에는 물론이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시행되어야 하고 개인의 피부유형, 알레르기 유무, 피부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클렌징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선택이 중요하다.

클렌징은 물 세안으로 지워지지 않는 화장의 유성성분을 없애주는 것을 말하며 피지, 땀 등의 자연 분비물과 피부 노폐물, 화장품의 찌꺼기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피부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클렌징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⁸⁶⁾

클렌징은 각종 노폐물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해줄 뿐 아니라 피부 상태를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따라서 올바른 클렌징제품 선택과 사용, 습관 등은 청결한 피부를 유지해 주고, 그로 야기되는 피부 질환을 막아주는 건강한 피부관리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⁸⁷⁾.

83) Hawkins. S. S. Subramanyan, Liu D, Bryk M. (2004). "Cleansing, moisturizing, and sun-protection regimens for normal skin, self-perceived sensitive skin, and dermatologist assessed sensitive skin". 『Dermatologic Therapy』. 17(suppl): 63-68. 재인용.

84) Bikowski, J. (2001). "The use of cleanser as therapeutic concomitants in various dermatologic disorders", 『cutis』, 68(5suppl): 12-9. 재인용.

85) Draelos, Z. D. (2006). "The effect of a daily facial cleanser for normal to oily skin on the skin barrier of subjects with acne", 『cutis』, 78(1suppl): 34-40. 재인용.

86) 신영하. (2013). 『클렌저 종류에 따른 베이스 메이크업 클렌징 효과 비교』.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7) 유승주. (2015). 『오일 종류에 따른 클렌저 제형의 특성 및 클렌징 효과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또한 클렌징은 피부의 오염물질 제거뿐만 아니라 화장을 닦아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피부미용 관리에서 행하여지는 중요한 단계이다⁸⁸⁾.

고운 피부를 원한다면 무조건 영양을 공급하기보다는 피부의 더러움을 먼저 깨끗이 제거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피부에 더러움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효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으므로⁸⁹⁾ 피부 청결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효율적인 피부관리를 계획하며,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징제품을 선택하여 정확히 관리되어야 한다.

4) 클렌징의 종류 및 특징

각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징 사용은 피부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도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클렌징제품을 바꿔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기능에 따라 세분화 하여 피부 유형에 맞는 클렌징제품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88) 손영주, 정민수. (2016), 전계논문, p.452.

89) 이정옥, 김문주, 윤동화, 채수형. (2005). 『메디칼 스킨케어』. 서울: 훈민사. p.125.

[표 2-2]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징제품 종류 및 특징

종 류	특 징
클렌징 크림 (Cleansing cream)	클렌징 크림은 친유성의 크림 상태(W/O)타입으로 건성 피부에 적합하며 세정력이 뛰어나 진한 메이크업이나 특수 화장 및 분장 등을 지울 때 효과적이다. 유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중세안을 해야 한다.
클렌징 로션 (Cleansing lotion)	클렌징 로션은 친수성(O/W)타입으로 촉촉하며 끈적임이 없어 정상, 건성, 노화, 민감피부 등 모든 타입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중세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세정력은 약하지만 피부에 자극이 적으며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클렌징 워터 (Cleansing water)	클렌징 워터는 액상 타입으로 사용감이 산뜻하며 끈적임이 전혀 없어 청량감이 좋다. 색조화장을 진하게 했을 때 보다는 가벼운 색조화장을 했을 때에 사용이 적합하며, 예민한 피부나 알레르기성 피부에도 부담이 없다.
클렌징 오일 (Cleansing oil)	클렌징 오일은 수용성오일로써 친수성(O/W) 제품으로, 클렌징 폼의 효과도 있는 제품이므로 이중세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립 앤 아이 리무버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진한 색조 화장을 지울 때 적합하다.
클렌징 젤 (Cleansing gel)	오일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이중세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 피부에 부담이 적고 가벼운 느낌이며 진정 효과가 있어 예민한 피부, 알레르기성 피부, 여드름 피부 등에 적합하다.
클렌징 티슈 (Cleansing tissue)	가벼운 색조화장을 지울 때나, 혹은 빠른 시간 안에 메이크업을 지워야 할 때 간편하게 휴대사용도 가능하다.
클렌징 폼 (Cleansing Form)	계면활성제형 클렌저로 거품을 형성하며 이중 세안 시 적합하다.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5) 딥 클렌징(Deep Cleansing)

딥 클렌징은 일반적인 클렌징으로 제거할 수 없는 모낭 속 깊은 곳의 노폐물과 노화된 각질층을 제거하고, 화장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건강한 피부는 주기적으로 표피의 기저층에서 재생되는 세포가 각화 작용에 의해 최종적으로 노후된 각질이 비듬처럼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죽은 각질 세포가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문제성 피부의 원인이 되고 거칠어지며, 안색이 맑지 않아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원인이 된다. 딥 클렌징은 이런 피부 표면의 죽은 세포인 각질과 모공내의 이물질, 피부 깊숙이 있는 화장품의 찌꺼기, 피부의 노폐물 등을 제거하고 과다하게 쌓인 노화된 각질 세포의 강한 응집력을 완화시켜 자연스러운 박리를 유도한다.

또한, 각질세포의 정상적 분열을 촉진함으로써 진피의 세포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름의 해소와 형성을 예방하고 모공 내 피지의 분비 조절과 모공 입구를 깨끗이 하며, 피부층의 수분 증발 저지막을 완화시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다.

6) 딥 클렌징의 종류

가) 물리적 딥 클렌징

(1) 스크럽(Scrub)타입은 알갱이가 있는 세안제로 얼굴에 도포한 후 마사지를 통하여 각질을 제거한다.

(2) 고마쥬(Gommage)타입은 동물성, 식물성 각질분해 효소를 함유한 제품으로 도포후 적당히 건조되었을 때 근육의 결 방향으로 밀어서 각질세포를 제거한다.

나) 생물학적 딥 클렌징(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촉매제이며 죽은 각질 세포를 분해한다. 피부에

바르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 효소가 작용하여 효과가 나타난다.

예민성 피부, 모세혈관 확장피부, 염증성 피부 등 모든 피부에 특별한 자극 없이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한다.

다) 화학적 딥 클렌징

(1) AHA(Alpha Hydroxy Acid)는 수용성으로 건성피부에 알맞고 두꺼운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다.

(2) BHA(Beta Hydroxy Acid)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을 말하며 지성 피부에 적합하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여드름 등에 효과가 있다.

라) 복합적 딥 클렌징

물리적 딥 클렌징, 효소 딥 클렌징과 AHA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 스크럽제에 단백질 분해효소나 AHA 같은 제품을 사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제공 한다.

7) 피부유형별 클렌징 사용법 및 관리방법

‘화장은 하는 것 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광고문구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렌징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피부의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영양을 공급해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전달되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피부에 맞는 올바른 클렌징제품 사용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각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징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중성(정상)피부

가벼운 메이크업은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젤 클렌저를 사용하고, 진한 색조 메이크업을 했을 시에는 클렌징크림으로 1차 세안을 한 후 거품이 풍성한 클렌징 폼을 사용하여 2차 세안을 한다. 각질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좋으며, 과도한 스크럽(Scrub)제품은 피한다⁹⁰⁾.

아침에는 약산성비누를 사용한 후 물로 잘 헹구거나 폼 클렌저를 이용해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 거품 세안을 한다. 비누의 성분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고 마지막에는 꼭 차가운 물로 마무리 한다.

나) 건성피부

비누와 물 세안은 금하며 자극이 적고 보습력이 뛰어난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수분함량이 다른 제품보다 많은 부드러운 로션이나 크림타입을 선택하여 클렌징 하는 것이 좋다. 주 1회 효소(Enzyme)타입을 이용하여 딥 클렌징 해준다.

다) 지성피부

클렌징 오일로 딥 클렌징(Deep Cleansing)을 해도 되지만 너무 잦은 사용보다는 클렌징 폼이나 젤 타입의 클렌징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 1회 효소타입이나 고마쥐타입의 딥 클렌징을 선택하여 각질과 피지를 제거한다.

라) 복합성피부

이마, 코, 인중 등 T존 부위는 클렌징 오일을, 건조함이 느껴지는 볼 부분은 부드러운 클렌징 폼 또는 로션이나 젤 타입의 클렌저로 세안한다.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실시하고, 특히 볼 부분에 스크럽제품 사용은 자제한다. T-Zone부위는 물리적 제품(고마쥐, 스크럽)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효소 제품을 사용한다.

마) 민감성 피부

피부자극을 최소화하고 진정시키며 안정감 있게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며 저자극의 민감성 전용 클렌징제품을 사용한다. 딥 클렌징을 저자극의 크림타입을 사용하여 2주에 1회 정도 실시하고, 민감도에 따라 생략해도 무방하다.

90) 김영은. (2003).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한 피부관리 절차 제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바) 여드름 피부

피지제거 및 피지 분비 조절로 트러블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유분기가 적은 제품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피부소독 기능이나 알콜이 함유된 제품, 또 살리실산, 비타민A, AHA 등의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이용하고, 지루성 피부 상태 개선과 피지 감소를 위해서 전문적인 세정제를 사용한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1차 설문 예비조사와 2차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화장을 시작하는 10대부터, 기초화장품에서 색조 메이크업까지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60대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폭넓게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설문지의 소요시간은 개인차가 있어 5분에서 1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설문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2차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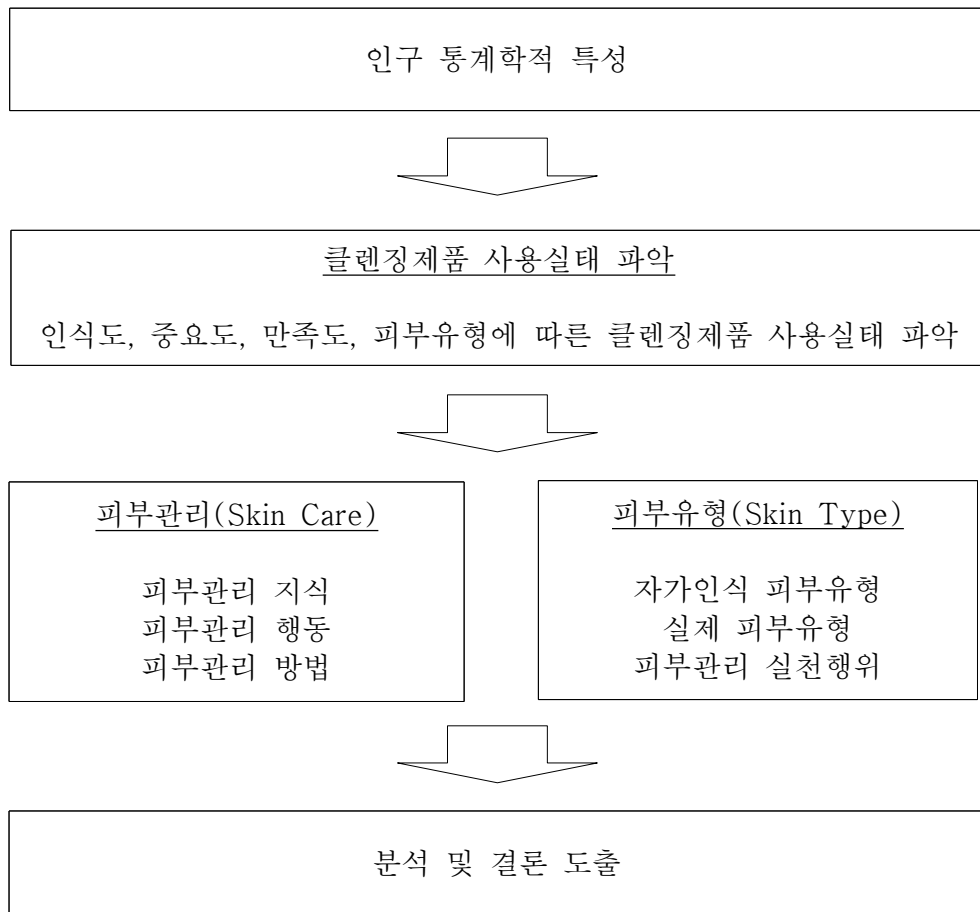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면접법과 설문지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간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답변 29(0.05%)부를 제외한 521(0.95%)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제 2 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각 개인별 클렌징제품 사용실태와 피부관리 및 피부유형 세 요인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세 요인에 대한 관계규명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는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설계도

제 3 절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피부관리 인지도, 클렌징 인지도, 클렌징 사용실태, 클렌징제품 사용 후 만족도, 피부유형, 피부관리 실천행위 등 총 5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 항목에 따른 설문내용 및 문항

연구 항목	설문 내용	문항 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월수입 등	7문항
피부관리 인지도	관심도, 횟수, 정보습득경로, 관리방법, 개선점, 문제점, 관리 지출비용 등	8문항
클렌징 인지도	중요성, 이중세안, 유·수분영양, 클렌징의 역할, 세정력 등	7문항
클렌징 사용실태	이용 시기, 이용 제형, 세안 횟수, 중요성, 적정 가격대, 피부개선 등	8문항
클렌징제품 사용후 만족도	만족도, 만족이유, 피부반응, 부작용 경험, 향후 선택제품 등	5문항
피부유형	피부 당김, 각질, 피부 톤, 모공크기, 번들거림, 홍조 현상 등	10문항
피부관리 실천행위	이중세안, 주름방지, 적용화장품, 미온수세안, 피부진정, 거품세안 등	10문항
총 계		55문항

제 4 절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 후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및 사용실태조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간척도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명목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빈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피부유형과 피부관리 실천태도, 인지정도에 대한 신뢰도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요인축약을 위하여 각 부분 요인에 대한 축약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축약된 각 요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 통계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자는 155명(29.8%), 여자는 366명(70.2%)으로 여자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는 기혼 208명(39.9%), 미혼 299명(57.4%), 기타(이혼사별) 14명(14%)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 102명(19.6%), 사무직 63명(12.1%), 전문직 121명(23.2%), 공무원 44명(8.4%), 판매서비스 95명(18.2%), 전업주부 41명(7.9%), 기타 55명(10.6%)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0~19세 62명(24.9%), 20~29세 140명(27.1%), 30~39세 153명(29.4%), 40~49세 94명(18.0%), 50세 이상 71명(13.6%)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중졸/재학 24명(4.6%), 고졸/재학 173명(31.1%), 전문대졸/재학 128명(24.6%), 대졸/재학 158명(30.3%), 대학원재학이상 49명(9.4%)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50만원미만 27명(5.2%), 50~100만원미만 27명(5.2%), 100~200만원 109명(20.9%), 200~300만원 112명(21.5%), 300만원이상 128명(24.6%), 기타 118명(22.6%)으로 나타났고, 월 용돈은 5만원미만 16명(3.1%), 5~10만원미만 46명(8.8%), 10~15만원미만 54명(10.4%), 15~20만원미만 45명(8.6%), 20만원이상 264명(50.7%), 기타 96명(18.4%)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횟수는 주 1회이상 171명(32.8%), 2주에 한번 124명(23.8%), 3주에 한번 38명(7.3%), 1개월 한번 74(7.3%) 으로 나타났고, 정보습득경로는 대중매체 79명(15.2%), 인터넷 137명(26.3%), 친구 67명(13.4%), 가족 67명(12.9%), 지인 77명(14.8%), 매장 직원권유 31명(6%), 전문가 권유 24명(4.6%), 신문잡지 9명(1.7%), 기타 27명(5.2%)으로 나타났다.

관리방법은 기초화장품 187명(35.9%), 기기사용 26명(5%), 마사지 82명(15.7%), 팩 190명(36.5%)으로 나타났다.

[표 4-1]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55	29.8
	여	366	70.2
	합계	521	100.0
결혼	기혼	208	39.9
	미혼	299	57.4
	기타(이혼사별)	14	2.7
	합계	257	100.0
직업	학생	102	19.6
	사무직	63	12.1
	전문직	121	23.2
	공무원	44	8.4
	판매서비스	95	18.2
	전업주부	41	7.9
	기타	55	10.6
	합계	521	100.0
연령	10-19	62	11.9
	20-29	141	27.1
	30-39	153	29.4
	40-49	94	18.0
	50세 이상	71	13.6
	합계	521	100.0
학력	중졸/재학	24	4.6
	고졸/재학	162	31.1
	전문대졸/재학	128	24.6
	대졸/재학	158	30.3
	대학원 재학 이상	49	9.4
	합계	521	100.0
월수입	50만원미만	27	5.2
	50-100만원미만	27	5.2
	100-200만원미만	109	20.9
	200-300만원미만	112	21.5
	300만원미만	128	24.6
	기타	118	22.6
	합계	521	100.0
용돈	5만원미만	16	3.1
	5-10만원미만	46	8.8
	10-15만원미만	54	10.4
	15-20만원미만	45	8.6
	20만원미만	264	50.7
	기타	96	18.4
	합계	521	100.0

2) 기술 통계

본 연구 자료의 각 변수들의 분포상태를 기술통계로 쉽게 이해하게 하였다. 기술통계는 여러 값을 도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규분포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관측 값 들이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왜도, 관찰 값 들이 산술평균 주위에 밀집 된 정도를 측정하는 첨도를 통계처리로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대체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등을 통계처리 하여 설문자의 답변의 특성을 보았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등에 대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중 명목척도를 제외한 자료의 답변의 이해를 위하여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한 결과를 [표 4-2]로 나타냈다.

조사대상자는 보통이상의 긍정적 응답 결과를 보면 클렌징 중요도, 개선의 향, 피부관리 관심도, 사용제품 만족도, 피부건강, 이중세안, 유·수분영향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타올(towel)눌러 물기제거, 사전 손 세척, 세안 후 기초 화장품사용, 거품 세안, 부작용 등은 보통이상의 부정적 답변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여러 가지를 추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세안의 중요성,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 피부건강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행위인 타올 눌러 물기제거, 사전 손 세척, 세안 후 기초화장품사용, 거품세안 등은 안 한다는 것이다. 피부관리나 정확한 세안방법 등을 안 하는 이유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자들은 시간적 한계나 귀찮음 등의 이유로 안하는 것으로 추론 된다. 그러므로 향후 클렌징제품 개발은 이를 보완 할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자는 클렌징제품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고 클렌징 제품의 부작용에 대하여서는 인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조사 대상자는 클렌징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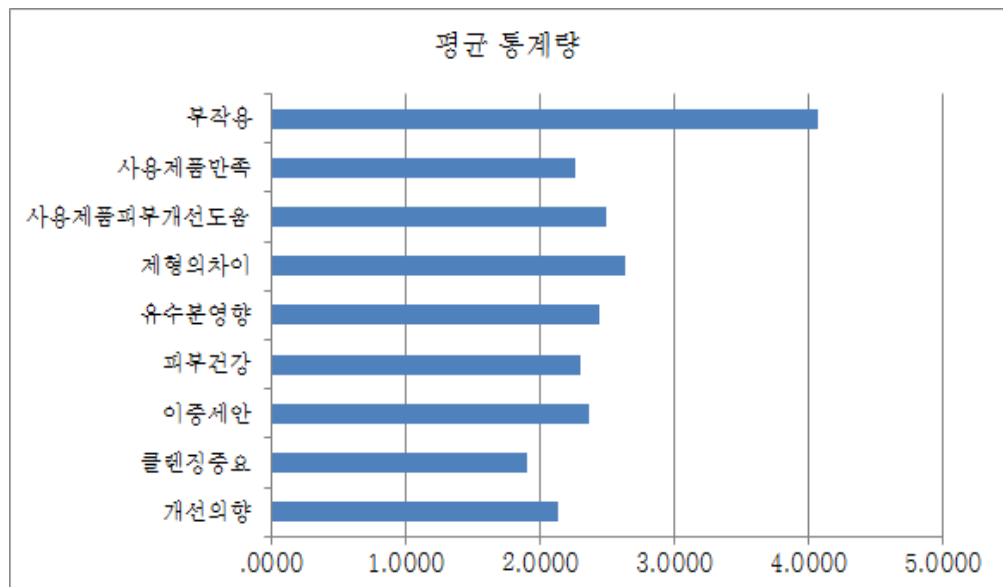
기술통계는 여러 값을 도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규분포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관측 값 들이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왜도, 관찰 값 들이 산술평균 주위에 밀집 된 정도를 측정하는 첨도를 통계처리로 산출하였다.

[표 4-2] 기술 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통계량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클렌징 중요도	1.9060	.85078	.670	.107	.047	.214
개선의향	2.1363	.92125	.778	.107	.617	.214
피부관리 관심도	2.2092	.92632	.549	.107	.041	.214
사용제품 만족	2.2610	.75765	.137	.107	.083	.214
피부건강	2.3013	.94430	.384	.107	-.189	.214
이중세안	2.3685	1.0517	.375	.107	-.610	.214
유·수분영향	2.4453	.96545	.297	.107	-.527	.214
피부개선	2.4990	.89684	.131	.107	-.393	.214
모세혈관 보임	2.5086	1.0267	.496	.107	-.266	.214
피부 당김 없음	2.5240	.95268	.233	.107	-.439	.214
제형의 차이	2.6315	1.0735	.288	.107	-.503	.214
화장 잘 지워짐	2.8042	.96280	-.080	.107	-.488	.214
피부 결 고움	2.8215	.89914	-.135	.107	-.173	.214
각질생김	2.8752	.95765	-.078	.107	-.513	.214
모공	2.8829	.90284	-.066	.107	-.382	.214
손 마찰 줄임	2.9040	.98956	.122	.107	-.426	.214
이마·코 번들거림	2.9079	1.0053	.117	.107	-.599	.214
클렌징오일 사용	2.9463	1.2282	-.022	.107	-1.06	.214
피부 당김 있음	3.0250	.97732	-.162	.107	-.333	.214
안면홍조 발생	3.0307	1.0428	.092	.107	-.701	.214
부위별 당김다름	3.0729	.91696	-.295	.107	-.430	.214
포인트 화장 제거 후 세안	3.1036	1.2092	-.121	.107	-.970	.214
저녁 이중세안	3.2534	1.1064	-.274	.107	-.814	.214
따뜻한 물 세안	3.2879	.95757	-.247	.107	-.323	.214
피부진정	3.3167	.99493	-.303	.107	-.437	.214
타올 눌러 물기제거	3.4242	.99349	-.504	.107	-.209	.214
사전 세척	3.4434	1.0196	-.305	.107	-.500	.214
세안후 기초화장품 사용	3.7524	.99330	-.682	.107	.099	.214
거품세안	3.8196	.87601	-.675	.107	.550	.214
부작용	4.0710	.98876	-.658	.107	-.572	.214

1. 매우 그렇다 3. 보통 5. 매우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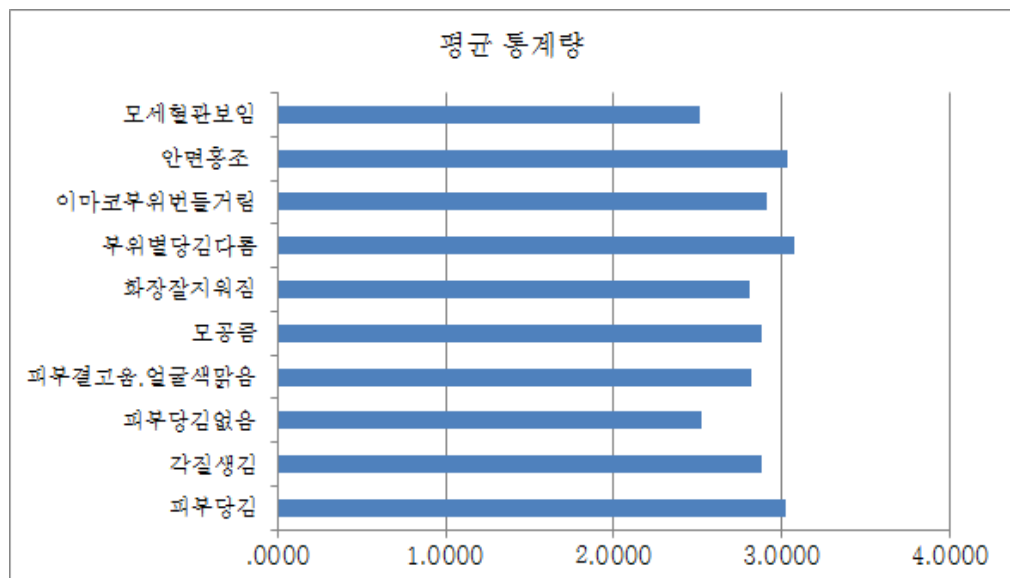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인지에 대한 각 부분별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일반적인 피부관리, 클렌징 인지도, 클렌징제품 인지도에 대한 답변은 [그림 4-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평균값이 2에서 2.5에 있어 조사대상자는 피부관리, 클렌징 인지도, 클렌징제품 인지도 등에 대하여 보통이상의 인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클렌징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대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3. 보통 5. 매우 아니다

[그림 4-1] 피부관리, 클렌징 인지도, 클렌징제품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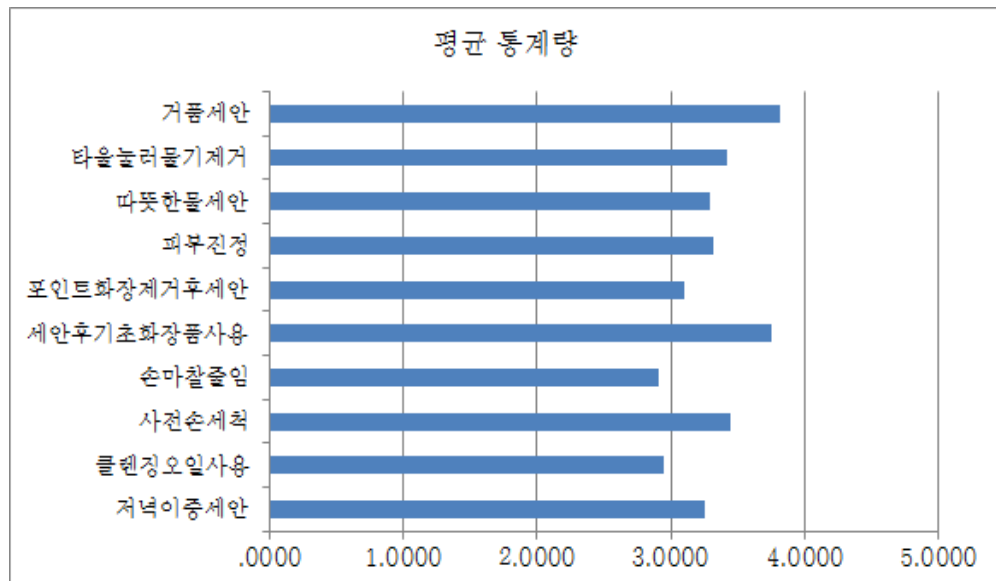
피부유형 인지에 대한 답변을 [그림 4-2]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평균값이 2.5에서 3에 있어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피부를 정상피부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인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피부를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피부관리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며 피부관리에 영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매우 그렇다 3. 보통 5. 매우 아니다

[그림 4-2] 피부유형

피부관리 실천행위에 대한 답변은 [그림 4-3]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평균값이 3에서 3.5에 있어 조사대상자는 피부관리를 보통보다는 높게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피부관리를 위하여 보통이상의 노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 매우 그렇다 3. 보통 5. 매우 아니다

[그림 4-3] 피부관리 실천행위

3) 명목척도에 대한 빈도조사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보다 조사응답자의 피부관리 방법이 본 연구에서 중요하므로 피부유형별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클렌징제품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피부관리에 대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표 4-3]와 같이 나타났다.

[표 4-3] 피부관리에 대한 빈도분석

구분		빈도	백분율(%)
관리방법	기초화장품	187	35.9
	기기사용	26	5.0
	마사지	82	15.7
	팩	190	36.5
	기타	36	6.9
	합계	521	100.0
피부관리 중요성	충분한 수면	170	32.6
	식단개선	59	11.3
	전문적 피부관리	143	27.4
	기능성화장품	96	18.4
	피부과 치료	32	6.1
	기타	21	4.0
	합계	521	100.0
관리부분	여드름	65	12.5
	주름	78	15.0
	건조	109	20.9
	모공	72	13.8
	피지분비	52	10.0
	탄력	69	13.2
	잡티	35	6.7
	색소	21	4.0
	기타	20	3.8
	합계	521	100.0
월지출비용	3만원미만	186	35.7
	3-5만원	122	23.4
	5-10만원	137	26.3
	10-20만원	47	9.0
	20만원	29	5.6
	합계	521	100.0

클렌징제품에 대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는 클렌징제품의 역할을, 먼지나 노폐물제거 51.1% 메이크업제거 36.5%로 메이크업제거 역할을 절대적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클렌징제품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항상 사용이 73.1%, 가끔 사용이 20.3%로 나타나 클렌징제품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클렌징제품을 조사한 결과 클렌징 폼 44.7%, 클렌징오일 22.5%로 클렌징 폼이 전통적인 세안 제품인 비누 8.3%를 월등히 앞서고 있어 세안 제품의 실제 사용 후 인식 변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클렌징 폼과 클렌징오일을 제외한 제품의 사용이 적으므로 이들 상품의 장점을 sales point로 사용하면 그 수요를 늘릴 것으로 사료된다.

[표 4-4] 클렌징제품 인지에 대한 빈도분석

구분		빈도	백분율(%)
클렌징의 역할	피부 결 보호	31	6.0
	메이크업 제거	190	36.5
	먼지·노폐물 제거	266	51.1
	각질 제거	15	2.9
	피부색 보정	2	0.4
	피부톤 보정	5	1.0
	기타	12	2.3
	합계	521	100.0
클렌징제품 사용	항시 사용	381	73.1
	가끔 사용	106	20.3
	사용 안함	34	6.5
	합계	521	100.0
세정력 우수제품	비누	43	8.3
	클렌징 폼	233	44.7
	클렌징로션	42	8.1
	클렌징오일	117	22.5
	클렌징워터	15	2.9
	클렌징 젤	13	2.5
	클렌징크림	36	6.9
	기타	22	4.2
	합계	521	100.0

클렌징제품 사용실태에 대한 빈도 분석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세안 횟수는 3~5회가 전체의 8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용 제품 가격은 4만원미만이 대부분 이었다. 사용 제품이 도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노폐물제거 등과 관련된 모공관리가 32.6%이고 그 이외에 도움 받는다고 답한 부분은 피부 결, 피부건조 등 피부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자가 클렌징제품으로 인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실제 도움 받는 부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클렌징제품 사용실태에 대한 빈도분석

구분		빈도	백분율(%)
세안횟수	2회 미만	84	16.1
	3회	160	30.7
	4회	58	11.1
	5회	209	40.1
	기타	10	1.9
	합계	521	100.0
제품가격	1만원미만	83	15.9
	1-2만원	193	37.0
	2-4만원	173	33.2
	5-10만원	60	11.5
	10만원이상	11	2.1
	합계	520	99.8
도움부분	건조	65	12.5
	주름	26	5.0
	탄력	52	10.0
	모공	170	32.6
	피부톤	61	11.7
	피부색	26	5.0
	피부결	79	15.2
	기타	2	8.1
	합계	521	100.0

클렌징제품 만족에 대한 빈도 결과, [표 4-6]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클렌징제품 사용에 대한 만족이유는 상쾌함 29%, 메이크업제거 23.6%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부반응에 대한 조사결과 자극 없음 50.7%, 자극 약간 있음 23%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극이 있었다라고 답한 결과도 21.5%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무자극성 제품 개발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6] 클렌징제품 만족에 대한 빈도분석

구분		빈도	백분율(%)
만족이유	상쾌함	151	29.0
	부드러움	92	17.7
	메이크업 제거	123	23.6
	당김 없음	68	13.1
	향	20	3.8
	트러블 제거	48	9.2
	기타	19	3.6
	합계	521	100.0
피부반응	자극 매우 심함	5	1.0
	자극 심함	20	3.8
	자극 있음	112	21.5
	자극 약간 있음	120	23.0
	자극 없음	264	50.7
	합계	521	100.0
향후 사용하고 싶은 클렌징제품	비누	36	6.9
	클렌징 폼	188	36.1
	클렌징로션	40	7.7
	클렌징오일	106	20.3
	클렌징워터	67	12.9
	클렌징 젤	24	4.6
	클렌징크림	29	5.6
	기타	31	6.0
	합계	521	100.0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1) 신뢰성 분석

신뢰도란 측정 대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으며, 검사 도구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를 의미한다. 즉, 신뢰도 분석은 조사 대상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에 답하는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분석법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로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검사 내 변수들 간의 평균 상관관계에서 검사문항들과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 척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조사연구에서는 .7 이상, 실험연구에서는 .8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보며 .9 이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답변이 신뢰성 여부와 표본의 규모와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피부관리에 대한 인지정도 문항들 중 신뢰도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아래 [표 4-7] 과 같이 답변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862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7] 피부관리 인지정도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862	.863	10

클렌징제품 사용에 대한 문항들 신뢰도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아래 [표 4-8] 과 같이 답변에 대한 Cronbach's alpha의 값은 .626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과학 통계에서는 .6 이상을 통계에 사용하여 더 이상의 항목을 제거하지 않고 본 결과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4-8]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626	.626	9

피부유형과 피부관리 실천 대한 인지정도에 대한 문항들 신뢰성 내적일관성을 검증한 결과 아래 [표 4-9] 과 같이 답변에 대한 Cronbach's alpha의 값은 .788로 높게 나타나 통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4-9] 피부유형과 피부관리 실천태도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Cronbach's Alpha Based on Standardized Items	항목 수
.788	.792	10

2)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이란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몇 개의 요인으로 추출한 후 변수 전체의 공통요인을 찾아내 각 변수의 영향 정도와 그 집단의 특성을 규정하는 통계기법이다. 요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공통된 요인을 축약시킴으로써 통계처리의 용이성을 가지게 하고 설문지 작성 시 사용된 요인의 공통성을 찾는 과정이다. 피부관리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0]와 같이 KMO값은 .883로 상당한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요인은 세 가지로 추출되었다. 첫째요인은 개선의향, 피부관리 관심도, 클렌징제품의 중요도, 이중세안, 피부건강, 클렌징제품 제형의 차이 등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피부관리라 요인 명을 칭하였다. 둘째요인은 사용제품 만족도, 사용제품 피부개선 도움으로 추출되어 클렌징제품 사용실태라 칭하였고 마지막 요인은 부작용, 유·수분영향으로 추출되어 클렌징제품 평가라 칭하였다.

[표 4-10] 피부관리요인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1	2	3
개선의향	.847		
피부관리 관심도	.816		
클렌징 중요도	.706		
이중세안	.598		
피부건강	.583		
제형의 차이	.526		
사용제품 만족도	.150	.863	
사용제품 피부개선 도움	.203	.811	
부작용	-.019	-.030	.881
유·수분 영향	.452	.365	.505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5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표준형성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83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 2073.486, 자유도 45, 유의확률 .000

클렌징제품 사용에 대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1]와 같이 KMO값은 .682로 통계적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클렌징제품 사용 요인은 세 가지로 추출되었다. 첫째 요인은 부위별 당김 다름, 이마·코 부위 번들거림, 화장 잘 지워짐, 각질 발생 등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라 요인 명을 칭하였다. 둘째 요인은 모세혈관 보임, 피부 당김, 모공 큼, 안면 홍조발생 등으로 추출되어 피부상태라 칭하였고 마지막 요인은 피부 당김 없음으로 추출되어 피부 당김 이라 칭하였다.

[표 4-11] 클렌징제품 사용실태요인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1	2	3
부위별 당김 다름	.693		
이마·코 부위 번들거림	.691		
화장 잘 지워짐	.657		
각질 발생	.587		
모세혈관보임	.320	.581	
피부 당김	.489	.530	
모공 큼	.502	-.504	
안면홍조 발생	.472	.485	
피부 당김 없음	-.107	-.178	.649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추출된3 성분

표준형성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682

Bartlett의 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 872.817, 자유도 36, 유의 확률 .000

피부 유형에 대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이 KMO 값은 .80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 유형요인은 세 가지로 추출되었다. 첫째요인은 따뜻한 물 세안, 피부진정, 타올 눌러 물기제거, 거품세안 등의 공통점인 세안방법이라 칭하였다. 둘째요인은 클렌징오일 사용, 포인트 화장 제거 후 세안, 저녁 이중세안 등의 요인이 추출되어 이중세안이라 칭하였고 마지막요인은 사전 손 세척, 세안 후 기초화장품 사용, 손 마찰 줄임 등으로 추출되어 세안전후 관리방법이라 칭하였다.

[표 4-12] 피부유형요인 회전된 성분행렬

	성분		
	1	2	3
따뜻한 물 세안	.745		
피부진정	.709		
타올 눌러 물기제거	.652		
거품세안	.614		
클렌징오일 사용	-.001	.802	
포인트 화장 제거 후 세안	.066	.655	
저녁 이중세안	.282	.651	
사전 손 세척	.120	.124	.845
세안 후 기초화장품사용	.302	.070	.618
손 마찰 줄임	.166	.258	.551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되었다.

표준형성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03

근사카이제곱 1200.619, 자유도 45, 유의확률 .000

제 3 절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각 요인인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피부유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이나 인과관계 분석을 배제한 이유는 본 연구가 피부관리와 클렌징제품 사용, 피부유형 요인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피부관리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부 당김,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세안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클렌징제품 사용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부 당김,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클렌징제품 평가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두 번째 영역인 클렌징제품 사용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클렌징제품 평가, 이중세안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피부상태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이중세안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피부 당김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일반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세안방법, 이중세안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마지막 영역인 피부 유형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 세안방법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일반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피부당김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이중세안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클렌징제품 평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피부상태 등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세안전후 방법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먼저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클렌징제품 평가 등 요인과 클렌징 제품 사용부분인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피부상태, 피부당김 등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13]와 같이 나타났다.

피부관리 요인과 클렌징제품 사용요인은 피부 당김과 상관관계에 있고 클렌징제품 평가요인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피부 당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피부상태에 따른 피부관리 이유가 피부 당김과 관계가 많으므로 피부관리 제품이나 클렌징제품 개발 시 보습기능을 첨가하는 것이 소비자 상품 선택에 기여할 것이다. 클렌징제품 평가요인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아 조사대상자는 클렌징제품 사용으로 피부의 변화를 원하고, 이를 통하여 제품을 평가하므로 클렌징 제품 사용 후 피부 변화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구매의사는 높아지나, 상품 사용 후 평가가 기대치 보다 낮으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는 재 구매 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클렌징제품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소비자 만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 된다.

[표 4-13] 피부관리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상관관계 분석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후 평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피부상태	피부 당김
	일반 피부 관리	Pearson상관계수	-.050	.006	-.113**
		유의확률(양쪽)	.252	.887	.010
		N	521	521	521
	클렌징 제품 사용	Pearson상관계수	.037	.027	.148**
		유의확률(양쪽)	.405	.537	.001
		N	521	521	521
	클렌징 제품 평가	Pearson상관계수	-.171**	-.040	-.059
		유의확률(양쪽)	.000	.364	.181
		N	521	521	521

피부관리와 피부유형 세안간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는 [표 4-14]과 같이 나타났다. 피부관리 요인은 피부유형, 세안요인인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 등 모두와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는 일반적인 피부관리를 위하여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부관리 방법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세안제품 즉, 클렌징제품을 이용하면 간접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클렌징제품 사용은 피부유형, 세안방법, 세안전후 관리방법 등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클렌징제품을 이용한 올바른 세안 방법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직접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클렌징제품 평가와 이중세안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제품 세정력에 불만이 많을수록 이중세안을 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으므로 제품 개발 시 세정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표 4-14] 피부관리와 피부유형, 세안간의 상관관계 분석

피부관리	피부유형, 세안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
	일반 피부 관리	Pearson상관계수	-.273**	-.126**	-.152**
		유의확률(양쪽)	.000	.004	.001
		N	521	521	521
	클렌징 제품 사용	Pearson상관계수	-.255**	.005	-.170**
		유의확률(양쪽)	.000	.902	.000
		N	521	521	521
	클렌징 제품 평가	Pearson상관계수	-.058	-.235**	-.079
		유의확률(양쪽)	.185	.000	.071
		N	521	521	521

클렌징 제품 사용 평가와 피부유형 세안간의 상관관계분석을 결과는 [표 4-15]와 같이 나타났다. 클렌징 제품 사용 평가요인 중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와 피부상태요인은 이중세안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클렌징제품 평가와 이중세안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소비자는 제품 사용 후 자신의 피부변화를 통해 제품을 평가하게 된다. 이 결과를 보면 소비자는 클렌징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세정 기능뿐만 아니라 피부 변화까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피부 당김은 세안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피부 당김 현상에 대하여 세안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클렌징제품 개발 시 피부 당김을 방지하는 보습기능을 추가한다면 클렌징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는 클렌징제품을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세안기능을 중시하면서도 피부 보습이나 피부 관리까지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제품 개발 시 좀 더 세분화된 기능성 클렌징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소비자의 욕구도 만족시키고 시장성 확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표 4-15]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유형과 세안간의 상관관계 분석

클렌징 제품 사용 후 평가	피부유형, 세안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
	클렌징 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Pearson상관계수	.068	.135**	.007
		유의확률(양쪽)	.122	.002	.876
		N	521	521	521
	피부상태	Pearson상관계수	.029	.146**	.065
		유의확률(양쪽)	.513	.001	.137
		N	521	521	521
	피부 당김	Pearson상관계수	.187**	.058	-.002
		유의확률(양쪽)	.000	.189	.966
		N	521	521	521

제 5 장 고 찰

세안은 피부관리의 기초가 되며 효과성을 좌우하는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이므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부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에 따른 효율적인 피부관리를 계획하여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올바른 세안방법으로 정확히 관리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클렌징제품 사용실태와 피부관리 및 피부유형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적절한 클렌징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관리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부 당김,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피부상태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이중세안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피부 당김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일반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세안방법, 이중세안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이혜원(2009)의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피부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피부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피부관리의 관심도나 개선의향이 높게 나타나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소비자들은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고 피부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수현(2003)의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련 행위와 사회 심리적 건강과의 관련성’에서 일반적 특성과 피부관련 특성, 피부건강행위 관련성은 연령이나 생활수준, 건강상태, 피부상태 그리고 피부건강 행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

둘째,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

부 당김,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고,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부분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클렌징제품 사용 후 만족도 부분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는,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클렌징은 이중세안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송정희(2010)의 ‘20, 30대 여성들의 세안실태와 클렌징 오일이 얼굴 피부건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서 클렌징제품 사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항상 사용 한다”고 77.4%가 가장 높게 답을 하여, 본 연구에서 클렌징제품은 “항시 사용 한다”는 가장 높은 73.1% 결과와 같았다. 또 클렌징제품이 피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피부 건조개선이 53명으로 50%를 차지하며 본 연구결과 모공에 도움이 된다는 170명, 32.6%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이은주(2012)의 ‘클렌징방법이 피부의 유·수분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서 클렌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세안 후 피부 분석 실험 결과, 모든 피부에서 공통적으로 클렌징 종류별 세안 후 유·수분 영향에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음이 확인됨으로서 가벼운 클렌징만으로도 충분히 세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에서 이중세안이 깨끗한 세안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한 번의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세안 효과는 있으며, 반드시 이중세안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피부유형별로 보면 건성피부는 수분 회복력에 비해 유분 회복력이 느리므로 세안 후 보습성분이 많이 함유된 기초화장품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성피부는 유분이 천천히 회복될 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분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클렌징제품 사용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각화현상이 원활해야 건강한 피부가 될 수 있지만 이중, 삼중 세안을 해야만 깨끗한 클렌징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습관은 과각화 현상을 일으켜 극심한 피부건조나 피부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셋째, 피부유형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피부 당김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이중세안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클렌징제품 평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피부상태 등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세안전후 관리방법 요인은 유의 확률 0.01 신뢰수준 99%에서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공희경(2011)의 ‘피부유형별 딥 클렌징의 효과’의 건성피부의 유분증가를 위해서는 효소와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고 수분 증가를 위해서는 효소와 스크럽 AHA를 사용하고, 탄력 증가를 위해서는 AHA를 사용하는 것이 유의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유분량이 증가할수록 유분감은 더욱 증가하였고, 수분량이 증가할수록 건조함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건조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32.6%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관리방법으로는 팩 36.5%가 가장 높게 나와 전문적인 제품을 이용한 피부건조 개선보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가 홈 케어(home care)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정혜정(2013)의 ‘피부유형별 세안방법 및 클렌저 사용법과 부작용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의 피부 반응 상태를 살펴보면 지성 피부는 “자극이 약간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복합성 피부는 “자극이 보통 이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피부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자극이 없다”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와 선행논문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임선형(2010)의 ‘세안화장품 사용에 따른 20대 여대생의 피부상태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클렌저로 클렌징 폼 49.1%가 가장 높았고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43.6%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현재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클렌저는 클렌징 폼 44.7%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사용하고 싶은 제품 역시 클렌징 폼 36.1%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피부유형과는 상관없이 세안제는 클렌징 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장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클렌징 폼을 대부분 세안제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용하고 싶은 제품역시 클렌징 폼으로 같았다.

쉽고 간편한 제품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해서 피부를 맑고 청결하게 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요약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으로 부터의 보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 각각의 이유로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자신의 피부유형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부관리 과정에서 세안은 필수적 요소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클렌징만으로도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 등을 제거함으로써 청결하고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개인별 피부관리에 대한 인지정도와 피부유형별 클렌징 사용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피부관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 실태를 조사하고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피부관리, 피부유형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간의 상관관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는 편의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자의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550부를 배포하여 유효성이 없는 29부를 제외한 521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먼저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응답 결과를 보면, 클렌징 중요도, 개선의향, 피부관리 관심도, 사용제품 만족도, 피부건강, 이중세안, 유·수분영양 등의 요소에서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올 눌러 물기제거, 사전 손 세척, 세안 후 기초화장품 사용, 거품세안, 부작용 등은 보통이상의 부정적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피부관리와 클렌징 제품 사용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10대~60대의 학생 주부 직장인등 남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피부관리, 클렌징제품 사용, 피부유형 과의 관계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조사를 한 결과는 성별로는 남자는 155명(29.8%), 여자는 366명(70.2%)으로 여자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결혼여부는 기혼 208명(39.9%), 미혼 299명(57.4%), 기타(이혼사별) 14명(14%)으로 나타났다으며, 직업은 학생 102명(19.6%), 사무직 63명(12.1%), 전문직 121명(23.2%), 공무원 44명(8.4%), 판매서비스직 95명(18.2%), 전업주부 41명(7.9%), 기타 55명(10.6%)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0~19세 62명(24.9%), 20~29세 140명(27.1%), 30~39세 153명(29.4%), 40~49세 94명(18.0%), 50세 이상 71명(13.6%)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중졸/재학 24명(4.6%), 고졸/재학 173명(31.1%), 전문대졸/재학 128명(24.6%), 대졸/재학 158명(30.3), 대학원재학이상 49명(9.4%)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50만원미만 27명(5.2%), 50~100만원미만 27명(5.2%), 100~200만원미만 109명(20.9%), 200~300만원미만 112명(21.5%), 300만원이상 128명(24.6%), 기타 118명(22.6%)으로 나타났고, 월 용돈은 5만원미만 16명(3.1%), 5~10만원미만 46명(8.8%), 10~15만원미만 54명(10.4%), 15~20만원미만 45명(8.6%), 20만원이상 264명(50.7%), 기타 96명 (18.4%)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실태조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자는 클렌징 중요도, 개선의향, 피부관리 관심도, 클렌징제품 만족도, 피부건강, 이중세안, 유·수분영양 등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의 긍정적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올 눌러 물기제거, 사전 손 세척, 세안 후 기초화장품 사용, 거품세안, 피부 부작용 등은 보통 이상의 부정적 답변이 나타났다. 즉 세안의 중요성,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 피부건강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세안 시 피부관리 실천행위인 타올 눌러 물기제거, 사전 손 세척, 세안 후 기초화장품 사용, 거품세안 등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인들이 시간적 한계나 귀찮음 등의 이유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 된다. 클렌징제품 사용실태에 대한 빈도 분석결과, 세안 횟수는 3~5회가 전체의 8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용 제품 가격은 4만원미만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사용제품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노폐물제거 등과 관련된 모공관리가 32.6%이고 다른 도움 받는 부분은 피부

결, 건조 등 피부관리와 관련된 분야이다. 즉 조사 대상자가 생각하는 클렌징 제품의 욕구와 실제 도움 받는 요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피부관리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의 값은 .862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클렌징제품 사용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내적일관성이 떨어져 피부 결 고움 등 일부 항목을 삭제한 후 Cronbach's alpha의 값은 .626으로 나타났다. 피부유형과 피부관리 실천 대한 인지정도에 대한 문항들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의 값은 .788로 높게 나타나 통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설문지의 요인을 축약한 결과 피부관리 요인으로는 피부관리, 피부제품 사용, 피부제품 평가로 세 가지로 추출되었고 두 번째 영역인 클렌징제품 사용 요인 또한 세 가지로 추출되었다. 세 요인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 피부상태, 피부 당김 없음 이라 칭하였으며, 피부 유형요인 또한 세 가지로 추출되어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으로 추출되었다.

넷째,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피부관리, 피부유형 각 변수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피부관리 요인과 피부유형 요인은 피부 당김과 상관관계에 있고, 피부유형 요인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요인과 상관관계에 있고, 피부관리 요인은 클렌징제품 후 피부반응이나 피부관리 실천행위인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 등 모두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부관리 요인과 클렌징제품 사용요인은 피부 당김과 상관관계에 있고 클렌징제품 평가요인은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피부건조에 대하여 소비자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피부관리 제품이나 클렌징제품 개발 시 피부건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보습기능을 첨가하는 것이 소비자

상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피부관리 요인 중 하나인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보면 소비자는 클렌징제품 사용을 통해 피부의 변화를 원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만족도를 평가하므로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 변화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피부관리와 피부유형 요인은 실천요인인 세안방법, 이중세안, 세안전후 관리방법 등 모든 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일반적인 피부관리 방법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세안 제품 즉, 클렌징제품을 사용하면 간접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클렌징제품 사용은 피부관리 실천요인인 세안방법, 세안전후 관리방법 등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므로, 올바른 세안 방법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클렌징제품을 홍보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또한 클렌징제품 평가와 이중세안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제품 사용 시 클렌징제품 세정력에 만족을 못 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중, 삼중세안을 하게 되므로 제품 개발 시 세정력 부분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피부요인 중 클렌징제품 사용 후 피부변화와 피부상태요인은 이중세안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났다. 소비자는 피부변화로 제품을 평가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클렌징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세정 기능뿐만 아니라 피부 변화까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부 당김 현상은 세안방법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통해 소비자는 피부 당김 현상에 대하여 세안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클렌징제품 개발 시 피부 당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보습기능을 추가한다면 클렌징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 갈 것이라 생각된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는 클렌징제품 사용만으로도 기본적인 세정기능 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이나 피부 관리 기능까지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클렌징 기능뿐만 아니라 효과성 및 안정성 등 피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스킨케어 기능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클렌징제품 개발에 관한 더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세안의 중요성이다.

세안이 각 요인과 많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세안 방법이 피부관리나 클렌징제품 사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둘째, 클렌징제품 기능의 중요성이다.

클렌징제품 사용이 피부 당김이나 피부상태 등 요인을 좌우하게 되므로, 향후 제품 개발 시 좀더 세분화된 기능성 클렌징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어 구매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다양한 각도에서 클렌징제품 개발 및 만족도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클렌징제품 부작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에 대한 세안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세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클렌징제품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면 소비자는 클렌징 제품 선택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 의사결정 5단계 이론 중 상품에 대한인지 즉, 정보제공은 소비자의 구매 갈등과정에 영향을 주어 구매결정에 기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다섯째, 산학협력의 기초를 제공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클렌징제품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이다. 최근 DIY 비누 등 소비자가 세안용품을 직접 만들거나 소 생산하는 공방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연구 결과는 소규모 생산자에게 소비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조사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를 계층 분화법에 의하지 않고 편의 추출하여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의 표본 추출은 계층 분화법을 기초로 확률적 표본 추출방법으로 전환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조사방법이 자기기입식이므로 문항에 대한 비이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면접법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용어의 비정확성으로 조사대상자의 이해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으로 조사자 면접법이나 시청각자료 제공방식을 병행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율척도를 잘못 설정하여 집단의 구분이 어려워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을 못한 점이다. 최초 설문작성 시 비율척도를 잘못 설정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들의 인지나 차이를 세분화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조사 연구를 하면 보다 실용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각하는 피부유형과 실제 피부유형을 유·수분 측정기 등을 이용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피부유형이 파악된 상태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실제 피부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등으로 더욱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다인. (2015). 『세안제의 종류와 세안 방법이 안면 피부의 클렌징 효과와 유수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명희 외 4인. (2008). 『피부미용사』. 서울; 혜성출판사. p.18.
- 강수정, 오윤경, 문덕환. (2015). 전기영동관리에 따른 건·지성피부의 유·수분도 및 탄력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6(2). 97-108.
- 공희경. (2011). 『피부유형별 딥 클렌징의 효과』.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곽형심 외 8인. (2012). 『미용학개론』, 서울; 정문각. p.238-239.
- 김경영 외 5인. (2015). 『화장품학』. 경기; 메디시언. p.147.
- 김관옥, 김성남. (2011). 탈모요인 자가인식이 건강관리와 두피 모발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26). 50-60.
- 김대옥. (2012). 『동양의 수기 마사지 비교연구 : 아유르베다와 경락 마사지의 비교연구』. 과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숙. (2009). 『이론과 실제 피부관리학』. 서울; 현문사. p51.
- 김명숙. (2003). 『피부관리학』. 서울; 현문사. p61-62.
- 김미영. (2009). 『대학생들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수준 및 행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봉인 외 8인. (2012). 『메디컬 에스테틱』, 서울; 메디시언. p.10.
- 김성중. (2013). 엠엘디와 스웨디시 복부 마사지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변비가 있는 대학생들의 자율신경계와 변비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 11(5). 1009-1014.
- 김신희, 송명언, 정성화. (2013). 성인 여성의 피부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8(2). 65-74.

- 김연진, 김경애, 정연강. (2003). 중년 여성의 피부건강관리 지식, 태도 및 교육 요구도 조사. 『중앙간호논문집』, 6(2). 83-91.
- 김연진. (2007). 『스톤테라피가 변비완화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미. (2006). 『메디칼 스킨케어에 대한 인식과 지불의사(WTP)가격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은. (2003).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한 피부관리 절차 제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옥, 배현숙. (2012). 계면활성제형 세안제와 용제형 세안제 사용에 따른 피부 상태의 변화.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0(3). 549-558.
- 김인옥. (2012). 『계면활성제형 세안제와 용제형 세안제에 따른 피부 상태의 변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화. (2009). 『마사지 종류에 따른 스트레스 경감 효과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 김영희. (2015). 여대생의 피부유형별 각질단백질량에 대한 연구. 『한국노인의료복지학회』, 7(1). 117-125.
- 김종대. (2000). 『피부관리학』, 서울; 고문사. p.56.
- 김종임. (2007). 세안(클렌징)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조사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5(2). 15-25.
- 김주덕 외 5인. (2004). 『신화장품학』. 서울; 동화기술. p.420-426.
- 김춘자. (2008). 『실전 전기미용기기학』. 서울; 훈민사. p.87-130.
- 김현옥 외 2인. (2000). 『메디컬 스킨케어』, 서울; 훈민사. p.104-105.
- 김희경. (2010). 『아비얀가 아유르베다 테라피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태열. (2007). 『스웨디시 마사지』. 서울; 예림출판사. p.12.
- 남향숙. (2010). 『마사지가 피로물질과 스트레스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상은, 김현서. (2014). 일반피부관리와 메디컬피부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재이용 의도. 『한국미용학회지』, 20(2). 207-216.

- 도은정. (2009). 『메이크업 후 피부개선 방안 연구: 20대 여대생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기복. (2013). 『출산경험이 있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딥티슈 마사지가 골반균형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서영, 오설아, 소영진. (2016). 20대 여대생의 피부 관리 이용실태 및 고객만족도. 『한국미용학회지』, 22(3). 552-559.
- 박선민. (2011). 아로마오일을 이용한 매뉴얼 테크닉과 고주파기기가 중년여성의 비만관리효과에 미치는 효과비교. 『대한피부미용학회』, 8(1). 131-136.
- 박인정. (2007).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혼합 미셀화에 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찬익, 김보애, 양재찬. (2009). Solubility parameter를 이용한 다층 클렌징 오일에 관한 연구. 『한국유화학회지』, 26(3). 240-247.
- 반소정. (2012). 『스톤마사지 테라피가 복부비만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분자, 윤천성. (2011). 에스테틱과 메디칼 스킨케어의 현황 분석 및 뷰티 산업의 개선 방향 연구. 『한국뷰티산업학회』, 5(1). 59-82.
- 배수현. (2002).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련행위와 사회 심리적 건강과의 관련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영주, 정민수. (2016). 여고생의 피부 유형과 세안 인식, 세안 실천 간의 연관성. 『한국미용학회지』, 22(2): 451-460.
- 손현진. (2008). 『여성들의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정희, 김봉조, 최은정. (2010). 20, 30대 여성들의 세안 실태와 클렌징 오일이 얼굴 피부건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4). 1-12.
- 송정희. (2010). 『20, 30대 여성들의 세안 실태와 클렌징 오일이 얼굴 피부건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명선. (2006). 『피부관리실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미숙, 김애경, 송제호(2012). 수기요법이 여성의 혈액 생화학적 지수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 10(2). 253-256.
- 신영하. (2013). 『클렌저 종류에 따른 베이스 메이크업 클렌징 효과 비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진영, 김주덕. (2009). 메디컬 스킨케어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5(3). 786-802.
- 신진영. (2009). 『메디컬 스킨케어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현실. (2013). 『뷰티테라피 선택 유형에 따른 피부 건강관리 행태와 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남훈. (2010). 『족태양방광경과 족삼음경의 경락마사지가 가임여성의 월경통 완화 및 월경전 증후군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지연. (2013). 『딥티슈마사지가 성인여성의 부종감소와 혈액성상 및 산화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여운철, 정찬우, 한승경, 김홍직, 한을남, 박기범, 최광호, 목혜수, 문병천, 김용상, 최성우, 황선영, 임이석, 김방순, 김석민, 김형주, 정혜신, 민경식, 이상준, 차승훈, 최석주, 심재홍, 이근수, 민복기, 황지환, 허창훈. (2009). 의학적 피부관리를 위한 의료기기의 사용과 법률에 대한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47(11). 1236-1245.
- 오수연, 이영선. (2012).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의 스킨케어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8(2). 310-318.
- 오정미. (2014). 『뷰티테라피의 이용실태와 스트레스 및 불안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승주. (2015). 『오일 종류에 따른 클렌저 제형의 특성 및 클렌징 효과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미진. (2012). 『피부관리실 형태에 따른 연령선호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지민. (2011). 『스톤테라피가 민감성 피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진, 권혜진. (2012). 수기요법과 기기요법의 안면피부 상태변화. 『한국미용예술학회지』, 6(4). 123-131.
- 이상주. (2006). 의학적 피부 관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4(2). 1-5.
- 이성옥 외 2인. (2011). 『최신 화장품 과학』, 서울; 광문각. p.316-319.
- 이은숙. (2009). 『세안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들의 피부관리 실천 행위와 피부상태에 미치는 효과』. 광주여자미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실. (2011). 연령 및 피부타입에 따른 피부관리태도와 피부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3). 269-279.
- 이은주, 임미현, 구희연, 신은경, 안미자, 황완균. (2009). 여중고생의 색조화장 실태 및 클렌징에 대한 태도. 『대한피부미용학회지』, 7(4). 327-337.
- 이은주. (2012). 『클렌징 방법이 피부의 유·수분 상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란. (2007). 『경락마사지가 중년여성의 혈청, 에스트로젠, 갱년기 증상, 피로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옥 외 3인. (2005). 『메디칼 스킨케어』, 서울; 훈민사. p.125.
- 이지영. (2013). 외모 관리 행동의 통제요인에 따른 차이분석: 피부관리행동 중심으로.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16(2). 185-192.
- 이혜원. (2009).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선형, 박선순, 김애경. (2010). 세안화장품 사용에 따른 20대 여대생의 피부상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4). 1-14.
- 임선형. (2010). 『클렌저제형에 따른 피부상태 및 만족도』.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세웅. (2008). 『전류인지역치를 이용한 민감성 피부 평가의 유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선일 외 11인. (2010). 『미용학 개론』, 경기; 광문각. p.108.
- 장현정. (2011). 『현대인의 중독에 대한 요가와 아유르베다 치유방법 고찰』.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향진. (2004). 『아로마 오일 마사지가 초산부의 분만통증과 불안 및 분만경험에 미치는 효과』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정. (2013). 『피부유형별 세안 방법 및 클렌저 사용법과 부작용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연환. (2013). 『세안제의 선택적 속성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종언 외 4인. (2011). 『화장품학』 . 서울; 정담미디어. p.118-123.
- 차은정. (2015). 『안면용 피부미용기기 이용 및 구매 실태 연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인수, 박경덕, 박준수, 정현. (2014). 편평사마귀의 발생 피부관리실과 병의원 에서의 피부관리가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과학회지』 , 52(12). 858-863.
- 최선미. (2010). 『비만관리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여성의 신체구성 체력 혈중지질 검사에 미치는 영향』 .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숙경, 이정숙, 송제호. (2011). 수기요법 시술이 비만여성의 신체조성과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및 내장지방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 9(3). 1-16.
- 최정연. (2010). 『성인남성의 피부지식 및 자가 피부관리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진선. (2015). 『청소년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에스테틱 매뉴얼 제안 연구』 .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편이숙. (2012). 『MLD와 Aroma MLD가 폐경기 여성의 스트레스 호르몬, 에스트로겐 및 심리적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 서울벤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표영희 외 6인. (2007). 『메디컬스킨케어』 , 서울; 파워북. p.2.
- 하병조. (2009). 세안화장품의 기기적 효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 5(1). 1-5.
- 한영숙 외 4인. (2008). 『피부미용학』 , 서울; 청구문화사. p.45.
- 한채정, 정유경, 김은희. (2010). 스킨테라피를 이용한 중년여성의 복부비만관리 효과. 『대한피부미용학회지』 , 8(2). 223.

- 홍연숙. (2005). 『성인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피부관리 및 체형조리실태 조사 연구』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지연. (2013). 『성인남성의 클렌징(Cleansing)과 딥클렌징(DeepCleansing)에 대한 인식도와 사용실태 연구』 .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인터넷 조사

<https://ko.wikipedia.org/wiki/> 위키사전 2016년 6월 20일 수정본

<http://dic.daum.net/word/> 다음사전 2017년 2월 16일 검색

3. 국외문헌

- Bucle, J. (2001). The rple of aroma therapy in nursing car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36(1): 57-72. 재인용.
- Bikowski J. (2001). "The use of cleanser as therapeutic concomitants in various dermatologic disorders", 『*cutis*』 : 68(5suppl): 12-9.재인용.
- Draelos, Z. D. (2006). "The effect of a daily facial cleanser for normal to oily skin on the skin barrier of subjects with acne", 『*cutis*』 , 78(1suppl): 34-40. 재인용.
- Hawkins, S. S. Subramanyan, Liu D, Bryk M. (2004). "Cleansing, moisturizing, and sun-protection regimens for normal skin, self-perced sensitive skin, and dermatologist-assessed sensitive skin" , 『*Dermatologic Therapy*』 , 17(1suppl): 63-68. 재인용.
- Tenjarla S, Micro emulsions. (1993). An oberview and pharmaceutical applications. *Crit. Rev. Ther. Drug*. 16: 46-521. 재인용.

【 부 록 】

설 문 지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및 피부관리와 피부유형의 관계성 연구」에 관한 연구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1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클렌징제품 사용실태 및 피부관리와 피부유형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위한 것으로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될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으로 조사하는 내용은 학문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소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제시된 모든 문항에 귀하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10-19세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학교 재학/졸업 ② 고등학교 재학/졸업 ③ 전문대 재학/졸업

④ 대학교 재학/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① 학생 ② 사무직 ③ 전문직 ④ 공무원 ⑤ 판매/서비스직 ⑥ 전업주부

⑦ 기타

5. 귀하의 결혼 유무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이혼/별거/사별 등)

6. 귀하의 월수입은?

① 50만원미만 ② 50~100만원미만 ③ 100~200만원미만

④ 200~300만원미만 ⑤ 300만원이상 ⑥ 기타(없다)

7. 귀하의 한달 용돈은?

① 5만원미만 ② 5~10만원미만 ③ 10~15만원미만 ④ 15~20만원미만

⑤ 20만원이상 ⑥ 기타(없다)

■ 다음은 피부관리에 대한 인지정도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귀하의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관심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없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2. 귀하는 피부관리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① 1주일에 한번이상 ② 2주일에 한번 ③ 3주일에 한번 ④ 1개월에 한번

⑤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

3. 귀하는 피부관리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① 대중매체(TV/라디오) ②인터넷 ③ 친구 ④ 가족 ⑤ 지인 ⑥ 매장 직원 권

유 ⑦ 화장품 전문가의 권유 ⑧ 미디어(신문/잡지) ⑨ 기타

4. 귀하는 피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① 기초화장품으로 ② 기기사용 ③ 마사지 ④ 팩 ⑤ 기타

5. 귀하의 피부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충분한 수면 ② 식단개선 ③ 전문적인 피부관리 ④ 기능성 화장품사용
⑤ 피부과 치료 ⑥ 기타

6. 귀하의 피부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관심 있다 ② 관심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 없다 ⑤ 전혀 관심 없다

7. 귀하는 피부관리중 어느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십니까?

① 여드름 ② 주름 ③ 건조 ④ 모공 ⑤ 피지 분비 ⑥ 탄력 ⑦ 잡티 ⑧ 색소 침착 ⑨ 기타

8. 귀하의 피부관리(홈케어)를 위한 월 평균 지출비용은?

① 3만원미만 ② 3~5만원미만 ③ 5~10만원미만 ④ 10~20만원미만
⑤ 20만원이상

■ 다음은 클렌징에 대한 인지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클렌징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 귀하는 클렌징시 반드시 이중세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 귀하는 클렌징 제품이 피부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4. 귀하는 클렌징 제품이 유·수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5. 귀하는 클렌징 제품 제형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크림/로션/오일/워터 등)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6. 귀하는 클렌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피부결 보호 ② 메이크업 지우는 용도 ③ 먼지, 노폐물제거 ④ 각질제거

⑤ 피부 색 보정 ⑥ 피부 톤 보정 ⑦ 기타

7. 귀하는 아래의 클렌징 제품 중 어떤 제품이 가장 세정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비누 ② 클렌징 폼 ③ 클렌징 로션 ④ 클렌징 오일 ⑤ 클렌징 워터
⑥ 클렌징 젤 ⑦ 클렌징 크림 ⑧ 기타

■ 다음은 클렌징 제품의 사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 하십니까?(아래 ③번 선택시 8번으로)

① 평상시 늘 사용 한다 ② 가끔 사용 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다

2.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언제입니까?

① 아침, 저녁 세안 시 ②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③ 취침전 ④ 화장을 했을
때만 사용 ⑤ 기타

3. 귀하는 어떤 종류의 클렌징 제품을 사용 하십니까?

① 비누 ② 클렌징 폼 ③ 클렌징 로션 ④ 클렌징 오일 ⑤ 클렌징 워터
⑥ 클렌징 젤 ⑦ 클렌징 크림 ⑧ 기타

4. 귀하는 클렌징시 맑은물로 몇 회 이상 세안 하십니까?

① 2회미만 ② 3회이상 ③ 4회이상 ④ 5회이상 ⑤ 기타

5. 귀하가 클렌징 제품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 입니까?

① 세정력 ② 브랜드 인지도 ③ 효과 ④ 가격 ⑤ 디자인(용기) ⑥ 기타

6.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제품의 가격대는 얼마 입니까?

① 1만원 미만 ② 1~2만원 ③ 2~4만원 ④ 5~10만원 ⑤ 10만원이상

7. 귀하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제품이 피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아래 ①,②,③번 선택 시 8번으로)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8. 클렌징 제품이 피부개선에 도움을 준다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 하십니
까?

① 건조 ② 주름 ③ 탄력 ④ 모공 ⑤ 피부톤 ⑥ 피부색 ⑦ 피부결 ⑧ 기타

■ 다음은 클렌징 제품 사용 후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사용하고 계신 클렌징 제품에 만족 하십니까?(아래 ①,②번 선택 시 2번으로)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 클렌징 제품에 만족하신다면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개운하고 상쾌해서 ② 부드러워서 ③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④ 당김이 없어서 ⑤ 향이 좋아서 ⑥ 피부 트러블이 없어져서 ⑦ 기타

3. 귀하가 현재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 사용시 피부의 반응(당김/간지러움/따가움 등)이나 느낌은 어떠합니까?

① 자극이 매우 심하다 ② 자극이 심하다 ③ 자극이 약간 있다 ④ 자극이 보통으로 있다 ⑤ 자극이 전혀 없다

4. 귀하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과거/현재 포함)?

① 매우 심했다 ② 심했다 ③ 약간 있었다 ④ 보통으로 있었다 ⑤ 전혀 없었다

5. 귀하가 앞으로 사용하고 싶은 클렌징 제품이 있다면 무엇 입니까?

① 비누 ② 클렌징 폼 ③ 클렌징 로션 ④ 클렌징 오일 ⑤ 클렌징 워터
⑥ 클렌징 젤 ⑦ 클렌징 크림 ⑧ 기타

■ 귀하의 피부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구분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세안 후 심하게 당기는 편이다.					
2	화장이 잘 받지 않고 각질이 일어난다.					
3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피부당김이 없다.					
4	피부 결이 고르고 얼굴색이 맑은 편이다.					
5	전체적으로 모공이 크다.					
6	피지가 분비가 많아 화장이 잘 지워지는 편이다.					
7	얼굴 부위별로 당김의 정도가 다르다.					
8	이마와 코 주위만 항상 번들거린다.					
9	외부의 온도에 따라 얼굴이 자주 붉어진다.					
10	평상시 얼굴에 모세혈관(실핏줄)이 보인다.					

■ 귀하의 세안 시 피부관리 실천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구분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중세안은 저녁에만 한다.					
2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클렌징오일 제품으로 세안한다.					
3	세안제를 사용하기 전에 손을 먼저 깨끗이 씻는다.					
4	세안 시 주름방지를 위해 손의 마찰을 줄여준다.					
5	세안 후 바로 기초화장품을 바른다.					
6	눈가나 입가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지우고 세안을 한다.					
7	저녁에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여 피부를 진정시킨다.					
8	딥클렌징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세안한다.					
9	세안 후 타올로 얼굴을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한다.					
10	클렌징제품 세안 시 거품을 충분히 내어 세안한다.					

☆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Cleansing Produ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kin Care and Skin Type

Shin, Mi-Hee

Major in Beauty Esthetic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Cleansing is the foundation of skin care and is the first and last step in determining effectiveness. Applying cleansing products by cleansing in proper method should be properly managed to maintain a healthy skin through planning effective skin care according to understanding of your skin type.

The skin exposed to the outside air for the first time is seriously damaged. If those pollutants are left on the skin, all the functions are not smooth, which causes various skin troubles, sensitive skin and aging of the sk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kin physiological function with cleansing in the morning and evening. Especially in the evening, cleansing products should be used to remove contaminants, wastes and dirt, such as sebum and sweat, makeup remnants and dead skin accumulated on the skin during the day. Most

people a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cleansing phase, however the choice of an inappropriate facial cleanser and improper cleansing methods can lead to a variety of skin troubles and a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people are using proper cleansing products for their skin types and whether people are practicing with proper cleansing management methods through investigating the use of cleansing produ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kin care and skin typ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vides the proper beauty knowledge related to the use of cleansing products as research data to help the skin health care industry.

Preliminary surveys and second surveys were conducted by targeting students and ordinary people residing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which include from the teenagers who start making make-up, to the 60s, men and women who use various cosmetics.

The questionnaire was fully explain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advance, and then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subjects by using the interview method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A total of 5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rom March 1 to March 31, 2017, and 521 items except for 29 negative answer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fi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155 males (29.8%) and 366 females (70.2%), 153 respondents (29.44%) were in the age of 30 to 39 years old which is the most, 173 graduated from high school (31.1%) and 158 graduated from university (30.3%) showed similar number of response. 121 professional workers (23.2%) were showed for the number of occupations, 299 unmarried persons (57.4%) showed, monthly wage more than 3 million won showed 128 persons (24.6%), and monthly allowance more than 20 thousand won showed 264 persons (50.7%).

Second, the skin care factors were correlated with skin tightness, cleansing method, double facial cleansing, and pre and post cleansing methods at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0.01 confidence level of 99%. Factors of the use of cleansing products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skin tightness, cleansing method, double facial cleansing, and pre and post cleansing method at a significance of 0.01 and a confidence level of 99%. The evaluation factor of the cleansing product was the correlation with the skin change after using cleansing product, double facial cleansing, and pre and post cleansing management method at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0.01 confidence level of 99%.

Third,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with the use of cleansing products, it was found that the factor of skin change after using cleansing product was correlated with the cleansing product evaluation and double cleansing at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0.01 confidence level of 99%. The skin condition factor was correlated with double cleansing factor at significance probability 0.01 confidence level of 99%. The factors of skin pulling were correlated with general skin care, use of cleansing products, cleansing method and double cleansing factor at significance probability 0.01 confidence level of 99%.

Fourth,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with the skin type part, the cleansing method factor was correlated with general skin care, use of cleansing products, and skin pulling factor at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0.01 confidence level of 99%. Skin type factors showed a correlation with skin care, use of cleansing products, and skin tightness factors at a significance of 0.01 and a confidence level of 99%. The double cleansing factor was found to have a correlation with the probability of 0.01 and the confidence level of 99% with the evaluation of cleansing products, skin changes after use of cleansing products, and skin condition. The pre and post cleansing factors were correlated with

the use of general skin care and cleansing products at a significance level of 0.01 and a confidence level of 99%.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selection and use of correct cleansing products are important variables for skin care and cleansing products, and are correlated with skin care, use of cleansing products, and skin type factors. In addition, the use of cleansing products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kin tightness and skin condi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use of appropriate cleansing products for their skin types, and systematic and efficient skin care are very important. Therefore, this paper is provided as basic data for presenting objective directions for future R&D and skin care industry by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he problems such as skin dryness, cleansing power, side effects, and satisfaction due to the use of cleansing products which showed in this present study.

【Keyword】 Skin Type, Skin Care, Cleansing, Cleansing method, Double cleansing, Skin trouble